



중앙일보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1 The Korea Daily

Saturday, April 27, 2024 A

한인 여고생 사건 유죄평결… 유가족, 재판 불공정 주장

무남독녀 외동딸 잃은 부모 '통한의 눈물'

지난 한 주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법정에는 옥튼고교에 재학중이던 무 남독녀 외동딸을 잃은 한인 부모의 분 노와 탄식으로 가득했다.

범인은 유죄 확정으로 인해 과실치 사 건당 각 10년, 즉 최대 20년형을 받 을 수 있으나 실제 선고 형량은 이에 미치지 못할 듯하다. 배심원 평결에서 징역 4년 권고 유죄평결이 나왔기 때 문이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재판이 매우 불 공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가족 측 은 검사가 소송을 아주 소극적으로 진 행했으며 협상의 가능성도 제기했다.

가해자가 사고 후에도 마약관련 사 진과 자동차 과속운전 영상을 틱톡에 계속 올렸는데 이를 캡쳐하고 링크를 걸어 검사한테 제출했으나 사건의 본 질과 관련없다는 이유로 재판 증거로 삼지 않았다.

피고측 변호사는 피고를 착하고 건



■ 팬데믹 시기 친구들과 함께 한 리안 양(맨 오른쪽) ② 지난해 사고 현장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실한 청년으로 포장해서 관용적인 분 위기를 유도하기도 했다.

유가족은 "범인이 원래 착한 사람이 지만 순간의 실수로 이런 일을 벌였다 정도로 넘어가려한다는 생각에 너무 도화가난다"고밝혔다.

지난 2022년 6월 7일 범인 우스먼 사 히드(당시 18세·작은 사진)는 친구들과 함께 BMW 승용차를 몰며, 제한속도 35마일 구간의 브레이크 레인 도로를

81마일로 질주하다가 교차로에서 좌 회전하던 차량을 피해 핸들을 꺾어 인 도를 덮치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한인 안리안 양(당시 15세)을 비롯해 두명 이 사망하고 한명이 중상을 입었다.

리안 양은 안씨 부부의 무남독녀 외 동딸이다.

리안 양의 아버지는 "우리는 매일, 그리고 매순간 가슴이 찢어지도록 울 었다. 내 딸은 우리 부부보다 더 오래

살아서 우리에게 작별인사를 해야하 지만, 우리가 딸에게 작별인사를 해야 만했다"고오열했다.

리안 양의 어머니는 "딸이 친구들과 전화로 수다를 떨며 크게 웃고 있었는 데, 조용히 하라고 나무랐던 일이 딸을 보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어떠한 말로도 이 슬픔을 표현할 수 없다"면서 "끊임없는 고통

이 내 눈에서 색깔을 앗아가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 모두 흑백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피해자 부모가 증언을 이어가며 재 판장에 슬픈 분위기는 고조되었을 쯤, 갑자기 가해자 모친이 실신하며 혼란 스러운 틈을 타 관심이 가해자쪽으로 옮겨지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피고는 배심원 평결 전 최후 진술을 통해 "당신들에게 용서와 자비를 빈 다"면서 "바라건대 나를 나쁜 사람이 거나 악령으로 보지 말고 좋은 사람으 로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2건 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판사는 변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 고 평결 직후 구속 수감을 명령했다.

유가족들은 "이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우리는 지금 정 의의 시작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범인은 사고당시 러너스 퍼밋 상태 에서 운전하고 있었으며 다른 세 명의 친구를 태우고 있었다. 김윤미 기자

≫ 3면 '유죄평결' 로 이어집니다

윤·이, 29일용산서 만나 '차담'

6년 만에 대통령-제1야당 대표 단독 회동 "의제·시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대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 당 대표가 2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 통령실에서 만난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 실장은 26일 3차 실무 회동을 갖고 회 담 장소와 날짜를 확정했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통화해 만나기 로 한 지 열흘 만에 회담이 열리게 됐 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단독 회 답은 2018년 4월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만남 이후 6년 만이다.

회담은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차담 회로 진행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날 기자들에게 "오찬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두분의 뜻을 감안했다"고 전했 다. 민주당 관계자도 "자유롭게 대화하 는데차담이더좋다"고말했다.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 실장, 홍철호 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 이 배석하고 민주당 측에서는 천준호 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 대변인 등이 배석할 예정이다. 회담은 1

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시간제한을 두 진 않기로 했다.

이날 양측의 합의는 말 그대로 전격 적으로 이뤄졌다. 전날까지만 해도 결 론을 미리 내지 말고 대화하자는 대통 령실과 개별 의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달라는 민주당이 평행선을 달렸다. 하 지만 이날 오전 이 대표가 최고위원회 의에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대통령실이 곧바로 "환영한다"고 화답하면서 급물 살을 탔다. 손국희·박태인 기자

» 2면 '윤·이 회동' 으로 이어집니다



더위 피해 청계천으로 ·· 한국은 벌써 여름 춘천과 대구 27도, 서울과 대전·광주 26도 등 전국 대부 분 지역의 최고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초여름 날씨를 보인 26일 서울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 고 있다. 기상청은 주말에도 서울 28도를 비롯해 전국의 낮 기온이 21~30도까지 오르고, 28일에는 서울과 대전 29도, 포항은 31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8~9도 이상 높은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했다. [뉴시스]









Annandale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적추병원

목·허리통증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DFXFX 변호사 선임 테라피스트가

 부헌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i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함께합니다

이재명 "다접어두고만날것" 윤대통령 "예우를다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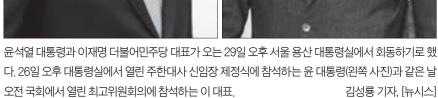
≫ 1면 '윤·이 회동' 에서 이어집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 난 25일 2차 실무 회동이 빈손으로 끝 났다는 결과를 보고받은 직후 조건 없 이 만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한 다. 이후 이날 사전 최고위 회의에서 "민생 골든 타임이 시급해 더는 아까운 시간을 버릴 수 없다"며 이 같은 생각 을 지도부에 설명했다고 한다. 이 대표 의 입장을 전달받은 윤 대통령도 참모 진에게 "즉각 회담을 준비하고 특히 민 생에 있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실 질적인 회담이 되도록 하라. 회담까지 이 대표에 대한 예우를 다하라"고 지시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뜻이 통하자 앞선 두 차례 협상에서 1시간20분 동안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던 실무 회동 은 이날 10분 만에 속전속결로 마무리 됐다. 이에 대해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도 이날 이례적으로 "이 대표가 의제를 사전에 확정하라며 압박하던 강경한 태도에서 벗어나 전향적 입장 을 보인 것은 다행스럽다"고 논평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 당 대표의 29일 회담이 진통 끝에 전격 성사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 속된 여야의 극한 대치 상태를 풀고 고 물가 등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 초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박근혜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 낸 허태열 전 실장은 "일단 만나서 대화 물꼬를 트는 자체가 청신호"라며 "한





번에 큰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대화 채널을 열어두는 데 의미를 둬야 한다" 고 조언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가 여·야·정 상설 협의체 구성 등을 합 의하면 협치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는 기대감도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양쪽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현안을 빼더라도 고유가 등 정부와 야당이 뜻 을 모으면 얼마든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현안도 적잖다"고 말했다. 과거 정 부에서 청와대 수석을 지낸 한 인사는 "어렵게 회담이 확정됐으니 윤 대통령

과이 대표모두 '적어도 민생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 하나씩은 내겠다'는 각 오로임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과거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성공 적인 회담으로는 2000년 6월 김대중 대 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회담 이 꼽힌다. 당시는 의약 분업에 반발한 의료계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불거진 시기였다. 김 대통령과 이 총재는 의약 분업은 예정대로 하되 약사법을 의료 계에 더 유리하게 개정하기로 합의해 불만을 달랬다는 평가다. 여권 관계자 는 "최근 의정 갈등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머리를 맞대면 해결책을 찾을 수있지않겠느냐"고했다.

하지만 회담 성과를 낙관하긴 이르 다는 전망도 만만찮다. 회담 의제가 확 정되지 않은 데다 민주당은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대통령실을 정조준할 수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을 논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는 점에서다. 천준호 민주 당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직전) 협상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제로) 언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신중한 분위기다. 대통 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가 특검법과 관련한 내용을 회담에서 언급해도 윤 대통령은 제한을 두지 않고 들을 것" 이라고 전했다. 다만 특검법에 대해서 는 대통령실 내에 여전히 부정적인 기 류가 강하다. 한 용산 참모는 "김 여 사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관련 사건 은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성급히 회담 테이블에 올리는 것보다 는 수사 결과부터 기다리는 게 순리" 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법이나 양곡관리법 등이 회담 의 제로 올라오느냐도 쟁점이다. 대통령 실은 "여당을 배제하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법안을 담판 짓자는 발상은 반 헌법적"이란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전날 실무 회동에서는 대통령실이 "단독회 담이 아니라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 한대행까지 함께하는 여·야·정 회담을 하자"고 역제안하기도 했다. 결과적으

로 단독 회담이 확정됐지만 여전히 민 주당에서는 "야권이 압승한 총선 민심 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대표가 반드시 방송법 등을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둘러싼 양측의 입 장차도 여전하다. 이 대표 측은 이날 통 화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야말로고 물가에 시달리는 민생을 보듬는 최우 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실 은 무분별한 돈 풀기는 오히려 물가 상 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 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국민 지급은 아니라도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선 별 지원 방안 등은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의제만 다양하게 늘어놓고 해답은 못 찾는 일회성 회담이 돼선 곤란하다"며 "회담에서 논의된 핵심 민생 현안을 따 로분류해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회담 이후에도 양측이 지속적으로 진행 상 황을챙길필요가 있다"고말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 동에서 배제된 데 대해 곤혹스러워하 는 모습이다. 여권 물밑에서 제기된 윤 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참 여하는 '3자 회동' 형식도 끝내 불발됐 다. 여권 원로는 "회동 논의에서 완전히 소외된 것 자체가 여당의 현주소를 보 여주는 단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손국희·박태인 기자

시진핑, 블링컨 만나 "우린 경쟁자 아닌 동반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을 방문 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양국은 경쟁 상대가 아닌 동반자"라 고 밝혔다. 시 주석이 블링컨 장관과 별 도로 회동을 가진 건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2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 당에서 블링컨 장관을 접견하고 올해 가 수교 45주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 "서로 해치기보다는 서로의 성공을 돕고 입장 차이를 줄이 기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수석은 이어 상호손숭과 평화공 _ 나 전쟁 능 현안과 관련해 충놀했다.

존, 상생 협력을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 칙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에서 이뤄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 만남도 언급한 시 주석은 블링컨 장 관에게 "이번 방문이 헛걸음이 되지 않 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욕타임스 는 이번 면담을 "양국이 긴장을 완화하 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신호"라 고 해석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 부장과도 회담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 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 중 수출규제, 남중국해 문제, 우크라이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정당한 발전 권리 가 부당하게 억압되고 핵심 이익이 지 속적으로도전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으로 대만 문제 를 꼽았다.

블링컨 장관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계속 추구 하고 있으며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 는다"고말했다. 그는 또 "이번 방중기 간 양국이 틱톡 문제에 관해서는 논의 하지 않았다"면서 "양국이 인공지능 (AI)에 대한 우려들 다두는 젓 공식 회



시진핑 주석(오른쪽)이 26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 장관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의를 몇 주 안에 열 것"이라고 했다. 왕 이 부장과 블링컨 장관은 북한 문제, 이 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능에 대해서

도 의견을 교환했지만, 그 내용은 공개 되지 않았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 령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 고 25일 밝혔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 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데 대한 우 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뤄지는 밀착 행 보다. 이날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산업 기업인연맹 회의에서 "5월 (중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방중 날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 나, 다섯 번째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7일 취임식 이후 첫 해외 일정이 될 가 능성이 크다.

베이징=이도성 특파원, 서울=백일현 기자



① 위싱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C. 703-489-6926





20년 미상미 품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슡ℝ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301-318-4242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Jinny19619@yahoo.com

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Bowie

\$639,000

싱글홈, 방4, 화4, 차고2

UNDERCONTRACT

Cockeysville

\$1.3Million

Finished Basement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ER CONTRACT

Edgewater

\$575,000

싱글홈, 방3, 화2, 0.45에이커

Columbia

싱글홈, 방4, 화2

UNDERGONTRAGT

Rockville \$280,000

콘도

Ellicott City

\$475,000

타운홈, 방2, 화2.5, 차고1

COMING SOON Perry Hall

예쁘게 단장 해

싱글홈, 방3, 화2.5

Rockville \$520,000

싱글홈, 방4, 화2

SOLD Ellicott City \$689.000 좋은 학군, 0.75 에이커



Cooksville \$449,000 싱글홈, 방4, 화2.5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방2, 화1





"FCC 인종차별 20억불 피해"

한인 1.5세 투자자가 전국적으로 60개 이상의 방송국 등을 소유한 미디어 그 룹을 인수하려다 무산되자 연방 정부 에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정부의 다양성 증진 정책과 인 종 차별적 행위가 인수 무산의 핵심 원 인이라는 게 소송의 요지다.

워싱턴DC 법원에 따르면 지난 24 일 스탠다드제너럴펀드의 김수형(영 어명 수 김·사진) 회장이 86억 달러 규 모의 버지니아주 미디어 그룹 '테그나 (Tegna)' 인수 무산과 관련, 연방통신 위원회(이하 FCC)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24일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인수 과정에서 매우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 며 "인종 차별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 기위해소송을제기했다"고말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FCC에게 인종 은 인수 승인 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 한 요소"라며 "FCC가 최근 의회에 보



고한내용을보면정 책을 결정하는 데 있 어 핵심은 '형평성 증진 정책'이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회장이 인 수하려 했던 테그나

는 흑인인 바이런 앨런(앨런 미디어 그 룹) 회장이 손에 넣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알렌 회장과 그의 지지자들은 계속해서 아시아계 미국인 소유의 회사는 '엉터리 다양성 (sham diversity)'이라고 여론을 몰고 갔다"며 "김 회장은 그들에게 어둠의 외국인 투자자처럼 그려졌고, FCC 위 원들에게 김 회장은 '적합한 유형의 소 수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테그나 인수가 난항을 겪을 때 한인 사회도 김 회장을 지원하기 위해 FCC 에서한을보낸 바있다.

당시 언론 노조가 김 회장의 테그나

인수 과정에서 "이는 다양성을 증진하 지 못하며 외국의 영향력이 우려된다" 며 반대 목소리를 냈었다. 이에 FCC가 노조의 반대를 이유로 김 회장의 테그 나 인수를 바로 승인하지 않고, 공청회 를 진행하면서 인수 거래가 계속 지연 됐었다. 이에 뉴욕한인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뉴욕한인회, LA한인회, 미주한 인위원회(CKA) 등 전국의 한인 단체 들이 FCC에 김 회장을 지지하는 내용 의 서한까지 발송했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2020년 초 입 찰에 들어갈 때 주당 10달러에 거래되 던 회사를 주당 24달러의 프리미엄까 지 지불하며 주주들에게 엄청난 가치 를 창출했다"며 "그러나 FCC는 라이 선스 이전 신청 등을 300일 이상 시간 을 끌며 거래를 무산시켰고 이로 인해 최대 주주였던 스탠다드 제너럴과 주 주들은 약 20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다" 고주장했다.

장열 기자

"어렵게 취업해도 비자 없어 짐 싼다"

한국인취업비자(E-4) 절실②〈끝〉

#. "불행하게도, 캐나다·칠레·싱가 포르 출신이 아니라 일이 더 어렵 게 됐네요". 파슨스 디자인스쿨 졸 업 후 뉴욕의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서 디자이너로 근무 중인 한인 A씨. STEM 전공으로 3년 동안 3번의 전 문직 취업비자(H-1B) 추첨 기회가 주어졌지만, 2년 연속 탈락했다.

마지막 추첨에서도 탈락할 경우 를 대비해 예술인 비자(O비자)를 알아보려 찾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같은 말을 들었고,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의 필요성에 뼈저리 게 공감하게 됐다.

#. 맨해튼에서 회계사로 근무 중 인 한인 B씨는 최근 한국행 비행기 표를 알아보고 있다. 어렵게 회계법 인에 입사해 H-1B 스폰서십을 받았 지만 최근 추첨에서 떨어져 올해 안 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기 때문.

B씨는 "1년에 한 번밖에 추첨 기 회가 없어서 매일 미래에 대한 불확 실함 속에 살아가야 한다"고 전했 다. 이어 "바늘구멍 뚫기와 다름없 는 추첨 확률에 유능한 한인 유학생 들이 비자를 받지 못하고 취업을 포 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안타 까움을 표했다.

심화하는 H-1B 추첨 경쟁률로 대학 졸업 후 어쩔 수 없이 귀국길에 오르는 한인 유학생들이 늘어나고

이들은 매일 불안에 떨며 직장생 활 중이라고 입을 모으며 E-4비자

를 향한 절실함을 피력했다.

컬럼비아대 졸업 후 스타트업에 서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일하는 C 씨는 "H-1B 스폰서십을 제공하는 회사를 겨우 찾아 올해 처음 추첨 에 참여했으나, 매년 낮아지는 추 첨 확률 속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 고 받아들였다"며 "비슷한 시기에 졸업한 친구들도 비자 문제로 인 해 커리어 계획에 많은 부담을 느낀 다"고 전했다.

비싼 학비를 들여 유학 생활을 마 쳤지만 취업비자가 없어 인터뷰 기 회조차 얻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

C씨는 "졸업을 앞두고 잡 오퍼를 받아 풀타임으로 고용됐지만, 첫 출 근한 달 전 회사 사정으로 비자 지 원이 어렵다며 채용 취소 통보를 받 았다"며 "인터뷰 연락이 거의 없던 시기에는 비자 문제를 언급하지 말 고 회사에 지원해야 하나 고민하기 도했다"고설명했다.

B씨는 "미국 회계사 자격증도취 득해놓은 상태라 스펙이 부족하다 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나, 인터뷰 기 회를잡기도 어려웠다"고 밝혔다.

연봉 협상이나 이직, 해고 문제에 서도 취업비자가 유학생들의 발목 을잡는다.

C씨는 "회사 입장에서는 취업비 자가 없는 유학생을 고용하는 게 위 험 부담이 크다 보니, 연봉 협상, 해 고 등의 상황에서도 불리하게 작용 할 수밖에 없다"며 "이직할 때 연봉 이 삭감되더라도 비자 지원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1,000

» 1면 '유죄평결' 에서 이어집니다

한 목격자는 "범인이 이 사고에 대해 자신 의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했다"고 밝혀,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다. 범인의 변 호사는 범인이 경험이 적은 운전자라는 사 실을 강조하면서 범인의 BMW 차량과 충 돌한 토요타 SUV 운전자에게 책임을 떠넘 겨 방청석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SUV 운전자는 법정에서 "나는 신호 끝 에 다달아 운행하고 있었는데, 강한 충격을 받았다. 한번도 경험한 적이 없지만, 마치 열 차에 부딪힌 듯한 충격이었다. 사고 직후 내 게 든 첫번째 생각은 마치 공포스러운 영화

속한 장면이라는 것이었다"고 증언했다.

범인의 변호사는 사건 당시 형사가 SUV 차량 운전자 인터뷰를 녹화하지 않았다 고 책망하는 등 재판 기만 전술로 일관했 다. 차량분석 전문가는 차량 데이터 녹화 장치 분석을 통해 범인이 사고 순간 시속 60-81마일로 가속했으며 절대로 브레이크 를 밟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청석에는 범인 의 친구로 추정되는 아랍계 20대 청년 10여 명이 참석해 위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기

선고공판은 7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김윤미 기자

대학 대신 직업학교 선택 늘어

21세기 들어 대학 학비 두배 증가, Z 세대 대학 회의론 커져

세대(1997년-2012년생)이 크게 늘고 있 다. 비영리 단체 '내셔널 스튜던트 크리 어링하우스 리서치 센터'의 최근 조사 에 의하면 2023년 직업전문학교(커뮤 티니 칼리지 직업전문 과정 포함) 등록

대학 대신 직업전문학교르 선택하는 Z 생은 2022년 대비 16% 증가했다.

워싱턴DC에 위치한 비영리 씽크탱 크 뉴 아메리카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Z세대의 절반 이상이 고교 졸업 학위 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임금을 받는 직 장을 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블루칼라 직종 의 인력이 크게 부족해져 해당 직종 임 금상승률이 고임금 하이칼라 직종을 크게 앞섰다.

또한 인공지능(AI) 등의 여파로 고 임금 하이칼라 직종의 미래가 결코 밝 지 않다는 점도 불루칼라 직종의 인기 를 높인 측면이 있다.

HVAC 냉난방 수리, 전기공, 배관공

등의 영역은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수리 등의 영역은 여전히 사람의 영역에 남 아있게 된다. 이들 전문직 블루칼라의 연소득은 쉽게 10만달러를 넘어간다.

게다가 지나치게 상승한 대학 학비 에비해졸업후기대소득이학자금부 채에 상응하는 가성비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 널리 퍼진 결과다.

연방교육부자료에 의하면 21세기 들 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어 4년제 대학 학비는 두배 이상 상승 이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경제적 독립 을 이루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 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반면 교사로 대학 기피 현상이 늘어난 측면

미국인의 대학 학자금 부채 총액은 2 조달러에 이르며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김옥채 기자

Dental Implant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암블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 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 Implant Crown, Extra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
- 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연애, 결혼 나만 어려운가?"

DMV지역 싱글들 위한 연애 & 관계 세미나

와싱톤중앙장로교회(담임 류응렬 목사, 이하 KCPC) 8B 공동체(노 명우 목사)가 주최하는 DMV지역 30~40대 싱글 청·장년들을 위한 만 남/연애/결혼세미나 '더시그날-이 끌림'이 다음달 4일(토) 오전 9시30 분부터 오후4시까지 KCPC 은혜채 플에서 열린다.

KCPC의 8B 공동체는 35세~55 세 싱글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장 년부 싱글 공동체로서 믿음안에서 배우자 만나기를 원하는 싱글 모임 이다.

노명우 목사는 "결혼 적령기를 놓 친 DMV지역 싱글들이 연애에서 결혼에 이르기까지 믿음안에서 자 연스러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절 호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관계 맺 는 방법을 통해 성숙한 신앙 인격자 가 되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 길소망한다"고말했다.





김영옥 교수

이번 '더 시그날-이끌림' 세미나 는 김영옥 교수(총신대 비교문화학 석사, 풀러신학교 목회학, 결혼 및 가족치료 석사, 휘튼 칼리지 임상 심리학 석사 및 심리학 석사)가 강 사로 초청돼 강연한다.

김 교수는 신학, 선교, 심리학 분 야를 통해 치유와 회복으로 상처 있는 영혼들을 위해 쓰임받길 원하 며 현재 임상 심리학자로 활동하며 Narramore Christian Foundation (NCF)의 이사 및 비영리 단체 ्। Korean American Wellness Association (KAWA)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윤미 기자

"아이들 위한 하나님 나라를"

'캄보디아 고아돕기 기금모금 음악회'

오늘(27일) 오후 5시, 엘리콧시티 소재 벧엘교회(담임목사백신종)에서 '캄보 디아 고아돕기 기금모금 음악회'가 열 린다.

온라인 매체 '만나24'가 주최하는 이 번 음악회는 캄보디아 칸달(Kandal) 지역에서 사역하는 김정영 선교사의 '주님의 자녀(HISCHILD)'를 후원하 기위해 마련됐다.

음악회는 DMV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중인 권기선, 윤해든, 정유진 소프 라노와 이성진 씨 찬미 가족 찬양단, 코 람데오 남성 중창단, 징검다리 난타팀 등총6팀의 재능기부로 뜻있는 무대가 꾸며진다.



음악회 입장료(20달러) 및 기부금 등 이날 발생하는 수익금은 캄보디아 현 지에서 통학용으로 쓰일 트럭 구입비(1 만7천달러)를 위해 전액 쓰인다.

▷문의 및 기부: 443-928-0303 ▷주소: 3165 St. Johns Ln. Ellicott City, MD

김윤미 기자

영킨 주지사 다음주 유럽 순방

글렌 영킨(사진) 버지니아 주지사가 28 일(일) 덴마크, 핀란드, 스위스 방문을 위해 출국한다.

주지사 취임 이후 세번째 외유로, 국 제통상 업무 지원을 위한 공적 여행으 로 알려졌다. 주지사실은 영킨 주지사 와 핀란드 총리와의 면담과 각국 통상 및 기업 관계자와 만나 상호 교역 증진 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



력과 뛰어난 기업환 경이 유럽에도 충분 히 매력적일 수 있 다"면서 협력 강화 를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할수있다고전 했다

영킨 주지사는 작년 통상 교류 목적 으로 프랑스를 방문했으나 국제에어쇼 에 참관하는 등 버지니아 산업과 그다 지 관련없는 행사로 일관했다는 비판

을 받아왔다. 그는 프랑스 방문 당시 제 2차 세계대전 때 전사했던 버지니아 병 사의 무덤 터를 방문하기도 했다.

영킨 주지사는 작년 미중갈등이 최 고조에 이르렀을 때 타이완을 방문하 는 등 정치적 행보로 일관했었다.

대선 예비경선 출마를 저울질하며 언론의 관심을 받고자했던 목적이었으 나, 결국 대선 출마 선언조차 못하고 말 았다. 주지사 방문단은 오는 3일 귀국 김옥채 기자

국악창작밴드'비오비'특별공연개최

워싱턴한국문화원 주최 내달 5일(일) 오후6시

워싱턴한국문화원(원장 김정훈, 이하 문화원)의 '온스테이지 코리아: 비오비 공연'이 내달 5일(일) 오후6시, 한국의 전통예술 민요를 새롭게 각색한 국악 창작밴드 공연으로 열린다.

비오비(bob)라는 단체명은 팝(pop) 이라는 어휘를 살짝 변화시켜 만든 단 어로 대중적인 한국의 전통음악을 만 들어 보자는 취지로 2016년 결성된 국 악창작밴드로 단체는 JTBC, 국악방 송, 21C 한국음악프로젝트, 풍류대장-힙한 소리꾼들의 전쟁, 한국-아랍에미 리트 상호 문화교류의 해 기념행사 등



초청돼 공연한 바 있다.

공연단은 관객 참여를 유도하는 창작 음악 레퍼토리를 연주할 예정이다. 주요 곡목으로 〈깨끼저고리〉, 〈아리랑 너의 노래〉, 〈경복궁타령〉, 〈섬머타임〉, 〈"오 늘, 청춘" 늴리리야〉, 〈주술〉, 〈몽련가〉, 〈Real to Reel〉, 〈트윙클〉, 〈쾌지나 칭칭 나네〉, 〈평창아리랑〉 등이 연주된다.

이번 행사에는 이수완(보컬), 김예슬 (건반), 홍서연(해금), 정민수(베이스),

김보름(드럼) 포함 5인이 참여한다.

아울러 온스테이지 코리아 공연과 연계해 3일에는 워싱턴 DC 공립학교 킹 초등학교와 휴스턴 초등학교를 방 문하여 공연, 워크숍 등을 진행할 예정 이며, 다음날인 4일(토) 오전11시30분 부터 오후1시30분까지 워싱턴 DC 각 국 대사관들이 참가하는 국제문화 축 제인 패스포트 DC(Passport DC) 행 사에 워싱턴 DC 각국 대사관들이 참 가하는 국제문화 축제인 패스포트 DC(Passport DC) 행사에 특별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 관람은 무료이며 워싱턴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다. 공연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면 된다. 김윤미 기자

AI로 목소리 조작해 교장 음해

인공지능(AI)로 목소리를 조작해 교장을 음해하려던 운동 부 감독이 체포됐다.

메릴랜드 볼티모어 카운티 경찰국은 파이크스빌 고교 운 동부 감독 다존 다리언(31)이 지난 1월 교장의 목소리를 AI 로 조작해 인종차별주의와 반유태주의 발언을 하게 했다.

용의자는 자신의 룸메이트에게 이같은 조작을 의뢰했는 데, 학교 공금으로 댓가를 지불해 횡령 사건 수사도 함께 받 고 있다. 용의자는 교장의 음성 한 단락을 녹취한 후 AI로 재생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교장의 조작된 AI 음성 메시지에는 흑인 학생에 대한 절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망감과 흑인학생들의 시험성적이 극히 낮은 점을 비꼬는 내 용이 포함됐다. 또한 유태인 교사 두명을 지칭해 절대 채용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멘트로 조작했다.

이같은 음성 메시지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졌으 며, 이에 항의하는 전화가 학교에 쇄도했다.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용의자의 횡령, 학교 기능 방해, 스토킹, 증인 보복 등의 혐의가 적시됐으나 용의자의 주요 범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이 미비한 상황이다.

스콧 쉘렌버거 볼티모어 카운티 검사장은 "우리가 알기 론 전국적으로 처음 발생한 사건 유형"이라며 "주의회가 관 련을 신기술을 통한 첨단 사기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김옥채 기자

애난데일에서 새롭게 오픈합니다 Patient First Patient First

당신을 위한 최고의 의료서비스가 바로 당신 곁에 있습니다

Patient First 4



편리하고 비용 효율적인 긴급 및 일반 진료/검사/치료 제공 주말 및 공휴일 포함 365일 오픈(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 예약없이 방문가능
- 각종 질병 및 부상 긴급 진료및 치료
- 주치의가 없는 환자에게 기본진료 제공
- 각종 주요 보험 환영- 보험 청구 접수대행
- 각종 혈액, 소변, 엑스레이검사등을 병원내에서 신속하게 실시, 처방약 병원내에서 구매 가능
- 응급실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
- 원격 진료

Annandale

7042A Little River Turnpike (순환도로에서 동쪽으로 1.5 마일) (703) 343-7125

"네셔널 얼전케어 센터" 인증 기관

종합 △ △

워싱턴 특파원 노트

'어쩌면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닐지 모른다.'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부차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담당 부차관보 등 미국 내 손꼽 히는 외교안보 전략통을 최근 인터뷰 하면서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이다.

이들은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며 미 본토 공격 능력을 갖췄다는 현 실을 인정하는 데서 이야기를 풀어나 간다.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핵 우산)에만 의존하는 데 대한 한국 내 우려와 의문을 이해한다는 전제도

볼턴 전 보좌관은 "확장억제 능력

워싱턴에서 조금씩 커지는 한국 핵무장론

이 가상이 아니라 바로 한국에 있다 는 확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고, 롤 리스전 부차관은 '나토식 핵 공유'라 는 해법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유력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 로 거론되는 콜비 전 부차관보의 경 고는 더욱 극적이다.

미국이 대(對)중국 군사적 우위를 잃은 상황에서 "뒤처진 핵 균형을 위 해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고 했다. 지난해 4월 한·미 핵협의그 룹(NCG) 신설을 골자로 한 '워싱턴



김형구 워싱턴 총국장

선언'의 한계를 지적하며 미국이 자 국의 도시를 북한의 핵공격에 희생하 면서까지 한국 안보를 지켜줄 거라고 약속할 수는 없다고 한 대목은 오히 려 솔직해서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

사실 그는 5년 전만 해도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한다"(2019년 VOA·

미국의소리 인터뷰)고 했던 인물이 다. 하지만 그간 북한의 거듭된 폭주 에 지금은 "미국의 재래식 전력 지원 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직접 한반도 를 방어해야 한다"며 한국의 자체 핵 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파

미국 정부의 공식 기조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에 맞춰 있다. 조 바이 든 대통령은 이달 초 시진핑 중국 국 가주석과의 통화에서 '한반도의 완 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국 핵무장시

동아시아 핵확산의 시발점이 될 거란 우려도 미 조야(朝野)에 여전하다. 다 만 금기시해 오던 한국 핵무장론이 '중국 견제'라는 대전제 속에 공개적 으로 쏟아져 나오는 상황은 분명 심 상치 않아 보인다.

비핵화의 길이 난망한 건 사실이 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한 미 군사 동맹을 고도화하고 자주국방 역량 또한 획기적으로 강화해 확장억제 역 량에 대한 의문을 불식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남북 물밑대화에도 계 속 힘써 우발적 충돌을 미연에 막아 야 한다. 북핵 문제는 손이 묶인 상황 에서 손을 써야 하는 난제 중 난제가 됐다.

1달러=155엔 … 한인들 일본 여행 급증

34년 만에 최저, 경비 대폭 절감 "물가 비싸서" 꺼리다 수요 폭발

역대급 엔저 현상이 이어지면서 LA지 역 한인들 사이에 일본 여행 수요가 급 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엔화 환율은 지난 25일 기준 달러당 155.52엔을 기록하며 34년 만에 최저치 를 기록한 가운데 심리적 마지노선인 155엔을 돌파하면서 엔저 현상이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일본을 다녀온 윤모씨에 따르 면 도쿄 지역 직장인들의 평균 점심 비 용이 1000엔을 넘지 않는 것으로 전해 졌다. 환산하면 6.43달러로 LA한인타 운 점심 비용의 3분의 1 수준도 안 된다.

이처럼 엔저로 경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자 한인여행사들에 일본 여 행 문의 및 예약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 로 드러났다.

지난해 비해 일본 여행 문의가 2배 이상 급증했다는 아주투어의 스티브 조 전무는 "일본 하면 물가가 비싸다 는 인식에 그동안 꺼려왔던 한인들이 이번 엔저로 인해 여행은 물론 쇼핑까 지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모국방문을 하면서 일본 관광에 나서 고 있다. 예매율은 20% 이상 증가해 월 100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인기 상품



오사카의 관광 명소 도톤보리에 몰린 관광객들

으로는 오사카, 도쿄, 후쿠오카 각각 3 박 4일 코스라고 전했다.

삼호관광 신영임 부사장은 "다음 주 출발하는 일본 여행팀만 30명이 넘는 다. 엔화뿐만 아니라 원화도 환율 차가 심해 일본+모국방문 패키지여행으로 한 달에 150명 정도 떠난다. 지난해에 비해 40% 이상 늘어 5월과 6월은 매주 3회씩 출발할 예정이다. 가장 인기 있 는 상품은 도쿄로 들어가 온천호텔 3 박을 포함해 후쿠오카로 나오는 6박 7 일일주코스"라고밝혔다.

춘추여행사 역시 여름방학 시기인 5 월 중순부터 7월 중순 사이의 일본 여 행 예약률이 높았다.

그레이스 이 팀장은 "문의 및 예약이 지난해보다 70% 정도 급증했다. 방학

에 자녀들과 함께 떠나는 가족 단위팀 이 늘면서 도쿄 또는 오사카 4일 코스 가 인기를 끌고 있다. 시니어들은 온천 지역인 규슈 4일 상품을 많이 찾는다" 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외 사용 수수료가 없는 크레딧카드를 이용해 은행이나 환전소에서 부과되는 환전 수수료를 절약하려는 한인들도 증가세 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터넷 활용에 능숙한 젊은층 은 항공권부터 숙박, 여행 일정까지 직 접 해결하면서 엔저 혜택을 극대화하 고 있다.

팬데믹 직전 오사카, 교토, 나라 등 관서 지역 관광을 했었다는 직장인 강 모씨는 "이처럼 환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 이번 여름에도 도쿄를 중심으로 일주일간 여행을 계 획하고 호텔, 항공권 예매도 끝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한인들은 일정에 따라 성 수기 한국행 국적 항공사 항공권 가격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본행 일 본 항공사 항공권을 구매해 일본 여행 을 한 후 저가 항공사(LLC) 항공편으 로 한국을 방문하는 식으로 경비를 절 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봉 15만불 이하 근로자 해당

'경쟁사 이직 금지' 조항 폐지 3000만명 재취업 용이해질 듯

연방 정부가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하 는 것을 막는 '비경쟁 조항 계약(noncompete clause agreement)'을 금지 하면서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임금에 일대 변화가 예고된다.

이번 조치로 비경쟁 계약에 묶여 있 는 약 3000만 명의 근로자들은 이전에 구직할 수 없는 일자리에 지원이 가능 해지고 이직과 함께 임금 인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

리사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 장은 이번 결정으로 1년에 8500개의 스 타트업이 창업하고 향후 10년 동안 근 로자 임금이 최대 4880억 달러 인상될 것으로 추산했다.

▶비경쟁 조항 규정 내용

향후 비경쟁 조항 계약은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됐다. 이에 고용주는 근로 자와 비경쟁 조항을 담은 계약 체결이 금지된다. 고용주는 규정에 따라 연간 15만1164달러 이상 소득에 정책 결정 위치에 있는 고위직 이외는 기존의 비 경쟁 조항을 강제할 수 없다.

▶적용 대상

비경쟁 조항 계약이 테크기업이나 글·사진=박낙희기자 금융 업계의 고위 임원에게만 적용된 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TV 뉴스 프 로듀서, 미용사, 기업 임원, 컴퓨터 엔지 니어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된다.

≫발효 시점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 법안은 일일 간행물인 연방 관보에 게시된 날로부 터 120일 후에 발효된다. FTC는 규정 을 제출하고 절차를 따르고, 연방 관보 에 정확한 시기가 공개될 때까지 기다 려야 한다.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 배경

비경쟁 조항 계약은 직원들이 회사 의 영업비밀, 채용정보, 거래처 등을 경 쟁업체에 가져가 즉시 활용할 수 없도 록 법적으로 제한했다. 특히 많은 업계 가 영업사원들에 비경쟁 계약을 사용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근로자 가 더 나은 직장을 위해 이직하거나 창 업이 제한됐다. FTC가 접수한 2만6000 개 이상 의견 중 2만5000개 이상이 비 경쟁 조항 계약 금지를 적극적으로 지 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망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 금지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상공회의소도 지난 수요일 FTC를 상대로 소송을 제 기한 상태다. 월스트리트도 이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 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은영 기자









VA. MD. DC. NC.TX. PA. SC. FL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ISB, Maryland State DL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S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Mumbles: DC MUSE/201870; NUL 2018/006:14 (2018) A 1908-21 (2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H마트 건너편 위치)

바이든 "트럼프와 토론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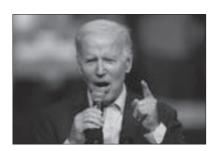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대결이 예정 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토 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조 바 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와 토론하겠 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하워드스 턴 라디오쇼'인터뷰에서 진행자스 턴이 '트럼프와 토론하겠냐'고 질 문하자 "그렇다, 어디선가, 언제 할 지는 모르지만 난 기꺼이 그와 토 론하겠다"고 답했다고 뉴욕타임스 (NYT)와 CNN 등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 NYT는 설명했다. 령과 토론하겠다는 입장을 명시적 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선 후보 토론에 대해 '트럼프의 태도에 달렸다'는 식으로 모호하게만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참모와 측 근 일부는 대선 후보 토론을 주관 하는 단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



대선유세하는바이든대통령 [AP연합뉴스]

론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제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그 간 토론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고

이런 상황에서 지난 14일 미국 주 요 방송사와 AP통신 등 10여개 매 체는 두 대선 후보의 토론을 촉구하 는 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회관 계망서비스(SNS)에 "언제, 어느 장소든, 아무데나"라고 적는 등 바 이든 대통령을 토론 참여를 압박 해왔다.

우크라에 60억불 무기 지원 추가 발표

"지원속도 높일 것"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60억달러 규모의 무기를 지원한다.

로이드 오스틴(사진) 국방 장관은 26 일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UDCG) 화상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이날회의는 UDCG 2주년을 맞아개 최됐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 라이나 대통령도 참여했다.

오스틴 장관은 회견에서 "신규 지원 에는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을 포함해 무인기 시스템과 대규모 포탄, 미사일 이 포함된다"며 "이번 지원으로 미국 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약속을 재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 지원 내역에 패트리엇 미사일 이외에 고속 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 이마스)과 첨단지대공미사일시스템 (NASAMS)용 미사일 등이 포함된다 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또 "우리의



동맹들도 우크라이 나 지원에 동참할 것"이라며 "연락그 룹참여국들은 무인 기와 포탄, 전차 등 을 지원할 예정"이 라고 설명했다.

그는 패트리엇 미사일 추가 지원과 관련해선 "일부 동맹국과 추가 지원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부 유럽의 카운터파트 들과 이 문제에 대해 일대일 논의를 이 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패트리엇 뿐 아니라 우크라이 나는 요격 미사일을 비롯해 여러 종류 의 무기체계를 필요로 한다"며 "패트 리엇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다. 우리는 지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 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스틴 장관은 특히 회견에서 북한 과 이란 등이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밀 착하며 러시아의 군사력이 배가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오스틴 장관은 "러시아가 현재 위치 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북한과 이란과 같은 나라에 의존하기 때문"이 라며 "그것이 아니었다면 그들의 상태 는 훨씬 나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는 현재 탄약 및 무기 생산을 높이고 있고, 북한과 이란으로부터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가 이번 지원으로 필요한 자원을 제공 받는 것과 동시에 자원 생산을 위한 역 량을 확충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최근 우크라이나 에 대한 608억달러 규모의 지원을 포함 해 이스라엘과 대만 등에 대한 안보지 원 예산법안을 처리했고 조 바이든 대 통령도지난 24일 이 법안에 서명·공포 함에 따라 이들 예산은 곧바로 집행에 들어갔다.

미국은 새로운 우크라이나 지원 예 산을 활용해 지난 24일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와 장비 패키지 를 제공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만 화롄현 인근서 규모 6.1 지진

대만 화롄현 인근 해역에서 27일(현지 시간)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으나 즉 각적인 피해 상황 보고는 없다고 로이 터 통신, AFP통신 등이 대만 중앙기상 서(기상청)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진은 화롄현 북북동쪽 25km 해역 에서 발생했다고 한국 기상청이 외국 관측 기관 등을 인용해 전했다. 진앙은 북위 24.19도, 동경 121.68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25km다. 이번 지진으로 대만 수도인 타이베이의 건물이 흔들 렸으며 휴대전화 경보가 울렸다고 로 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대만 지역에 진도 5.6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독일 지 구과학연구센터(GFZ)를 인용해 보도 했다.

대만 화렌 지역에서는 지난 3일 규모



7.4(미국·유럽 지진당국 발표 기준)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 23일에도 화롄현 인근 바다에 서 규모 6.0, 6.3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 했으며 화롄의 일부 건물이 기둥 붕괴 로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인 13%"사법부, 트럼프를 다른 피고인과 동등하게 대우"

CNN 조사, 트럼프 지지자 24% "유죄 판결시 지지 재고려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그가 다른 형사 사건 피고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많지 않 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CNN이 지난 18~23일 전국 1천212명 을 대상으로 진행해 26일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법 체계가 '성추문 입 막음' 사건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을 다른 사건 피고인들과 동등하게 대 우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3%에 불과했 다. 응답자의 34%는 사법 체계가 트럼 프에 더 관대하다고 했고, 다른 34%는



하다고 답했다.

다수가 법원이 트럼 프를 다른 피고인과 다르게 대한다고 생 각하는 가운데 그 방 향에서는 극명히 갈

린 것이다. 이 재판의 배심원단이 공정 한 평결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 응답 자는 44%에 불과했고, 나머지 56%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보인 태도가 '부적절하다'(42%)는 답변이 '적절하다'(25%)보다 많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성인영화 배우와의 과거 성추문이 폭로

트럼프에게 더 혹독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돈을 지급하고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작년 3월 기소됐으며 지난 22 일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 CNN 조사에서 응답자의 45%는 이 런 혐의가 사실이더라도 트럼프의 대선 출마자격과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 트럼프를 지지하는 응답자 중에 76% 는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아도 '계속 지지하겠다'고 했으며, 24%만 '지지를 다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 '재고려할 수도 있다'고 답한 응답자 들은 이번 조사에 참여한 등록 유권자 의 약 12%에 해당하는데 이는 대선이 초접전일 경우 승패를 충분히 좌우할 수 있는 규모라고 CNN은 설명했다.

뒷방 신세 된 전차…러시아 드론 공세에 최전선에서 빠져

최근 31대 중 5대 러 드론에 파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드론(무인기) 공세에 막혀 고전을 면치 못하던 미국 제 M1 에이브럼스 주력전차를 최전선 에서 후퇴시켰다고 AP통신이 26일(현 지시간) 미군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

미국이 지난해 제공한 해당 M1 전차 들은 현재 최전선에서 모두 후퇴했으 며, 미군은 우크라이나군과 함께 새로

전술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미군과 국방부 당국자들은

앞서 미국은 지난해 1월 러시아에 맞 서 대대적인 반격을 벌이고 있던 우크 라이나를 돕기 위해 세계 최강 전차로 평가받는 M1 에이브럼스 31대를 지원 했다. 그러나 그 후로 러시아가 정찰 및 공격용 드론을 대거 투입해 전투 양상 이 급격히 변하면서 '지상전 최강자'로 군림하던 전차의 위상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현대에 만들어진 전차는 윗부분과 후방이 상대적으로 덜 보호되어 공중

공격에 취약한 데다가, 정찰 드론이 거 대한 전차의 위치를 쉽게 파악해 공격 타깃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두 달 사이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M1 에이브럼스 선차 31대 중 5 괴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우크라이 나 전쟁에서 드론의 확산은 "(적에게) 발견될 우려 없이 (전차가) 돌아다닐 수 있는 땅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AP 에 말했다.

전장에서 드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한 우크 라이나 지원 패키지에도 드론 격추를 위한 방어 체계와 탄약, 방공망 등이 대 거 포함됐다. 여기에 M1 전차를 대체하 기 위한 구형 험비 차량과 대지뢰장갑 대가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에 당해 파 차(MRAP), 브래들리 장갑차 등도 더

> 다만 M1 에이브럼스 전차들이 우크 라이나 전장에서 힘을 쓰지 못한 배경 에는 러시아 드론의 위협 외에 우크라 이나군이 전차를 활용하기 위한 전술 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고국방부 당국자들은 덧붙였다.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예난데일 703-354-1515

準峰 I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9시 30분 - 오후 7시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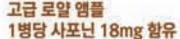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면역력 향상을 원하는 당신의 건강지킴이 (LG생활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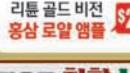
한팩 사포닌 12mg 함유

홍삼 로얄 본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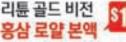


리튠 진한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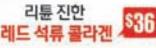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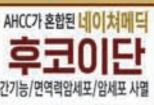




당뇨잡는 도깨비 방망이 함양 여주



쓴 여주를 먹기 좋게 환으로















영신 생 로얄제리 원액은 USDA(미농림부)로부터 100% 유기농 인증을 받은





면역강화

관절치료 통증완화에 최기

항암, 면역성 강화, 갱년기 증상 예방

키 10배키우기 프로필디스 인명 등씨











키즈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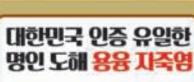


















70가지 이상의 미네탈을 함유한 강력한 항산화

각종 음식의 풍미 강화, 잇몸 건강



장수 넘버원 홍화씨 뼈, 관절 건강에 최고비

골다공증, 염증, 관절염 감소

식후 단 2알로 혈당 걱정 끝!! 헐당 억제 기능성

인정받은 원료가 2개들어 있어 더욱 강력합니다





Winexen 우메켄

건강탄산칼슘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죽염 치약

각종 치주 질환.

치주염 예방 탁월



천연 발효 식초



문경 오미자청





산양유 초유 단백질

노년기 빠지는 근육 생성, 회복 우유를 못 드시는 분도 편안하게

MERCHANIS 당뇨, 고혈압, 요실금, 근육, 낙상

유기농 CBD 통증 크림





소더비 부동산 칼럼

부동산의 봄… 지금이다

금리가 올랐어도 수요는 여전히 높 다. 그러나, 매물은 부족하기만 하다. 2024년 봄, 워싱턴 메트로 지역 주택 시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결과다.

지난 2021년에 비해 워싱턴 DC 주 택공급물량은 시장의 거의 1/3 수준 라서 집을 팔 예정이라면 경쟁 상대 DC 부동산 시장의 평균 판매 기간은 와 달리 버지니아에는 많은 부동산 따라서 상대적으로 봄이 판매하기 혀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큰 상 가장좋은시기다.

시장의 거의 1/4로 감소한 상태다. 따 라는 결론이다.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전

승요소다. 장 큰 특징은 중하위 가격대에서는 시 2021년 시장의 거의 절반 수준으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구매자들 가지로 메릴랜드에 매물로 나온 주 버지니아 부동산 거래량은 2021년 택을 팔기에 지금은 가장 좋은 시기

DC - Seller Volume Over Years / 연도별 판매자 거래량

VA- Seller Volume Over Years / 연도별 판매자 거래량

MD- Seller Volume Over Years / 연도별 판매자 거래량

마이크론에 61억 달러 보조금 지급

제조업체인 마이크론에 61억4000만 달 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바이 든 정부는 반도체 주권을 되찾기 위해 10년 안에 세계 최첨단 반도체 칩 20% 를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국 내외 주요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이번 마이크론에 대한 보조금은 규모만 놓고 보면 인텔과 TSMC, 삼성에 이은

관은 이날 반도체 법에 따라 마이크론

지난 2022년 제정된 반도체 법은 미 미국 기업들은 D램에서 손을 뗐다. 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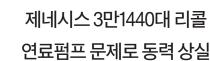
싱가포르에서 이뤄진다.

마이크론은 그간 뉴욕주에 4곳, 아 이다호주에 1곳의 반도체 공장을 짓겠 다고 공언해왔다. 이번에 받은 보조금 으로 뉴욕주 클레이에 들어설 4개의 D 램 반도체 생산 공장 중 초기 2곳의 건 설에 활용할 계획이다. 뉴욕주 4개의 공장 각각에는 5만5740㎡, 총 22만3000 m²의 클린룸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 는 미국에서 발표된 클린룸 중 가장 큰 규모이자 축구장 40개 크기라고 회사

대형 소매점 직원들 일정 조정 쉬워진다

다. 단, 음식 서비스 직원은 제외된다.

배정(clopening shifts)은 직원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또한 규정 위반을 신고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가 주행 중 동 력 상실 가능성으로 4개 모델에 대해 리콜을 단행했다.

컨수머리포트는 제네시스의 2022~23년형 GV70, GV80, G80(사진), 제로 1만9000대를 리콜한 바 있다. G90이 연료펌프 문제로 인해 주행 중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며 3만1440대를 (NHTSA)에 제출한 문서(리콜번호 리콜된다고 24일 보도했다.



제네시스는 지난해 9월에도 동일 문 프를 무상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24V282)에 따르면 이 문제와 관련해 할수있다.

463건의 불만 신고가 접수됐으며 인명 피해, 사고, 화재 등은 없는 것으로 전

증상으로는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 거나 비정상적인 엔진 작동 현상이 발 생할 수 있으며 딜러에서 해당 연료펌

리콜 해당 여부는 고객서비스센터 제네시스가 고속도로교통안전국 (855-371-9460)나 웹사이트(nhtsa. gov)에서 차량고유넘버(VIN)로 확인





THE CENTURION GROUP Sotheby's



차별화된 Sotheby's 만의 격조 있는 서비스를 지금! 경험 하세요.



Sylvia Son Preferred Lender(MLO 2315038) +1.703.629.2866 Sylvia.son@emetmorgage.com



David Park Managing Principal +1.646.644.2564 dpark@ttrsir.com



Jenny Park Operations Manager +1.858.692.4774 jennypark@ttrsir.com

계속되는 치열한 매물시장! Sotheby's 팀은 바이어님들을 위해 오늘도 집을 짓고 있습니다. 럭셔리 콘도미니움,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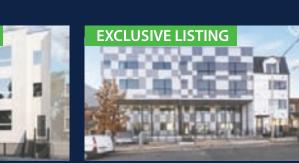
\$10,000,000 콘도, 12유닛, 넓은 주차장, 12,411 SqFt



\$9,200,000 싱글홈, 방 5, 화장실 8, 8,132 SqFt



\$4,776,000 콘도, 6유닛, 넓은 주차장, 12,180 SqFt



\$3,804,900 콘도, 12유닛, 7,865 SqFt



LIST: \$2,390,000 SOLD: \$2,285,000 싱글홈, 방 6, 화장실 8, 4,821SqFt



LIST: \$2,219,000 SOLD: \$2,160,000 싱글홈, 방 6, 화장실 6, 3,707SqFt



LIST: \$2,188,888 SOLD: \$2,200,000 싱글홈, 방 6, 화장실 6, 4,360SqFt



LIST: \$1,750,000 SOLD: \$1,700,000 싱글홈, 방 5, 화장실 8, 6,804SqFt

오픈하우스 일정: 824 18th st NE, Washington D.C., 20002. 매주 일요일 2pm-4pm. 웹사이트: https://www.dmvcenturiongroup.com/



LIST: \$3,199,000 SOLD: \$3,060,000 싱글홈, 방 6, 화장실 7, 4,075SqFt 싱글홈, 방 7, 화장실 8, 4,887SqFt 싱글홈, 방 6, 화장실 6, 3,707SqFt 싱글홈, 방 6, 화장실 8, 5,195SqFt 싱글홈, 방 5, 화장실 7, 4,505SqFt



LIST: \$2,250,000 SOLD: \$2,125,000



LIST: \$2,219,000 SOLD: \$2,160,000



LIST: \$1,850,000 SOLD: \$1,892,476



LIST: \$1,150,000 SOLD: \$1,150,000

'찐명' 박찬대,원내대표 단독 출마 … 친명계 "이 대표가 낙점"

민주당 총선 당선자 내달 3일 투표 19년 만에 경쟁 아닌 합의 추대 진행 국회의장도 친명계 선출 우려 커져 박지원 "이런 건 정치 아니다" 비판

국민의힘선 '찐윤' 이철규 비토론 영남서도 "당에 도움 안돼" 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으로 꼽히는 박찬대 의원이 22대 국회 민주당 첫 원내 사령탑에 단독 출마했 다. 26일 오전 마감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후보 등록에 박 의원 혼자 입후보 하면서다. 사실상의 추대다. 박 의원은 4·10 총선에서 인천 연수갑에서 당선돼 3선고지에 올랐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다음달 3일 22대 총선 당선자들의 찬반 투표 방식 으로 진행된다. 투표 의원 중 과반이 찬 성하면 선출이 확정된다. 이에 대해 당 선관위 간사인 황희 의원은 "찬반 투표 를 통해 민주적인 절차적 정당성이 확 보된다"고 설명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이 대표가 길을 터주는 분위기인데 누 가반대하겠느냐"는 반응도적잖다.

박 의원의 단독 출마는 친명계 내부 의 교통정리가 이뤄지면서 완성됐다. 지난 23일 박 의원의 유력한 경쟁자로 거론되던 서영교(3선)·김민석(3선)·김 성환(재선)·한병도(재선) 의원이 차례 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25일엔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고심 끝에 출마 의 사를 접었다. 친명계 민형배 의원도 "이 번 원내대표는 총선 민심을 반영하는 시대정신이 있어야 한다"며 "이에 부합 하는사람이하는게 맞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이 경쟁이 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원 내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닌 합의 추대로 진행되는 건 19년 만이 다. 2005년 1월 정세균 당시 열린우리당 (민주당 전신) 의원이 홀로 입후보해 만 장일치로 추대됐다. 다만 당시에는 천 정배 원내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 법 안 통과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직 후 정 의원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총 대를 멘 성격이 짙었다. 보수 진영에선 2008년(홍준표 한나라당 의원)과 2014 년(이완구 새누리당 의원) 원내대표를 합의 추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표 최측근의 원내대 표 합의 추대를 두고 친명계에서조차 "이 대표가 원내대표까지 '지명'한 것" 이란 비판이 나온다. 친명계의 한 수도 권 당선인은 "보통 선거에서 크게 이긴 정당에서는 다양한 의원들이 원내대표 도전장을 내고 건전한 경쟁을 하는 게 정상"이라며 "이 대표가 사실상 원내대 표를 낙점하자 원내대표를 노리던 다른 이들도 '알아서 기는' 모양을 연출했고 이로 인해 투표도 하나 마나가 돼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친명계 중진의 원도 "지나친 한목소리는 당의 다양성

과 역동성을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차기 국회의장마저 친명계 가 선출될 경우 친명 체제가 거대 야당 을 넘어 국회 전반으로 번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국회의장에 도전 하겠다는 뜻을 밝힌 추미애(6선) 당선 인과 조정식(6선)·정성호(5선)·우원식 (5선) 의원 등은 모두 친명계를 자처하 며 "탈중립"을 공언하고 있다. 이에 대 해 박지원 당선인은 "당이 이렇게 쏠려 서 일사불란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며 "집권을 위해서는 당내에서



다음달 3일 경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 표로 거론되고 있는 이철규 의원.

다양한 목소리와 바른말이 나와야 한 다"고 꼬집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상황이 비슷하긴 마찬가지다. 민주당과 같은 날인 다음 달 3일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인 가운 데 당내부에서 '이철규 대세론'를 둘러 싸고 갑론을박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철규 비토론'은 특히 수도권 원외 낙선 자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찐윤'으 로 분류되는 이 의원이 최근 당선인 현 역의원 등과 활발히 접촉하는 등 원내 대표 출마 가능성이 흘러나오자 "총선 패배에 책임 있는 친윤 지도부는 안 된 다"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

경기 고양병에서 낙선한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 연해 "국민께서 별로 흔쾌하시지 않을 것이다. 당에서도 반발 기류가 있다"며 "친윤·영남은 일단 한 발 뒤로 물러서 백의종군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을에 출 마했던 이재영 전 의원도 "대중은 (친 윤 원내대표는)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 고 해석할 여지가 크다"며 "대통령을 친윤으로서 잘 모시고 싶은 생각이라 면 이번엔 자리에서 빠져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했다.

수도권뿐 아니라 영남에서도 반대의 견이 나온다. 대구시장을 지냈던 대구 달서병의 권영진 당선인은 "용산과 원 활하게 소통할 수 있고 용산을 뒷받침 해주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다고 '예스'만 하면 안 된다. 이번 에는 '노'라며 설득할 수 있는 원내대표 가 돼야 하는데 이 의원이 그에 합당한 분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경 남의 한 의원도 "원내대표 선거는 결과 가 발표되기 전까진 알 수 없다"며 "특 정인 유력은 당에도 도움이 안 된다. 오

히려 수도권과 충청권 후보들이 더 거 론돼야한다"고말했다.

친윤계는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하 고 친한 게 죄는 아니다"(조정훈) "대표 가 반윤이 돼야 하나"(유상범) "친윤이 기 때문에 원내대표 등 당직을 못 맡으 면 어떤 의원이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야 당과 협상할 수 있겠느냐"(강승규)며 이 의원을 엄호했다. 그런 가운데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이 의원을 만나 1시간 가까이 대화한 사 실이 알려져 주목을 모았다. 이에 대해 윤 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 원장 선임과 관련해 당내 의견을 다양하 게 수렴하려고 만났다. (원내대표 출마)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출마를 고민 중인 의원들 은 대통령실과 당내 여론을 살피며 출 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겉으로 드 러난 여론과 유권자인 현역 의원의 선 택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관측도 나온다. 친윤 중에서는 비영남권의 성 일종(충남 서산-태안·3선), 송석준(경 기 이천·3선), 김성원(경기 동두천-양 주-연천을·3선) 의원 등이, 비윤에서는 김상훈(대구서·4선) 의원과 김도읍(부 산 강서·4선) 의원 등이 출마를 고심 중 이다. 송석준·김성원 의원은 수도권 출 신이라는 점이, 김상훈·김도읍 의원은 중진으로 옅은 계파색과 합리적인 성품 이 강점으로 평가받는다.

당사자들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도읍·김성원 의원은 출마 여부에 대 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즉답 을 피했다. 성 의원은 최근 중진 의원들 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한 다. 송 의원도 "적임자를 찾을 수 있도 록노력하고 있다"고만 했다.

김정재·이창훈 기자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 로 보관하며 이를 재활용해 별건 수사 를 벌이는 것은 위법이란 대법원 판단 이 재차 나왔다. 야권에서 검찰이 압수 수색영장 범위를 벗어난 휴대전화 정보 까지 복제(이미징)해 보관한다며 '민간 인 불법 사찰' 의혹을 키우고 있는 상황 에서 대법원이 2022년부터 일관되게 견 지 중인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1무(수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압수한 뒤 여기서 우연히 발견한 통화 녹음 파 일로 검찰 직원의 범죄 혐의를 확인해 재판으로 넘긴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 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에서 탐색·복제·출력된 녹음 파일과이에 터를 잡고 수집된 2차적 증 거들은 위법 수집 증거로 모두 증거 능

휴대폰 정보 통째 보관해 별건 수사에 쓴 검찰…대법 "위법하다"

력이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 능 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 을미친잘못이 있다"고판단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2018년 12월 원 주시청 국장급 간부 A씨의 국토계획 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며 A씨 휴대전 화 전체 정보를 대검찰청 서버인 '디넷 (D-NET)'에 보관했다. 검찰은 이 가운 데 검찰 서기관 B씨와의 통화 녹음 파 일을 우연히 재생하다 B씨가 A씨로부 터 수사와 관련한 부정 청탁을 받거나 B씨가 A씨에게 수사 상황을 누설한 정 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3개월 동안 추가 영장 발부 없이 이 녹음 파일을 대검찰청 서버에 그대로 저장해 둔 채 B씨 혐의와

검찰, '국토계획법 위반' 공무원 수사 별개 혐의 발견해 관련자 구속 기소 대법 "증거능력 없다" 원심 파기환송

관련된 증거를 수집했다. 검찰은 이듬해 인 2019년 3월 새로 발부받은 영장으로 대검잘정 서버에 저상된 이 녹음 파일 능 을확보하고 두달 뒤 B씨를 공무상비밀 누설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쟁점은 휴대전화 정보 압수수색 과 정에서 별개의 범죄 혐의를 우연히 발견 한 뒤 이에 대한 새 압수수색영장을 받 았을 때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증거 능력을 인정해 B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반면 대법원은 "A씨 혐의와 관련한 영장 집행 종료 후 무관한 정보를 삭제. 폐기·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면서 이를 탐색·복제·출력한 일련의 수사상 조치는 모두 위법함이 명백하다"며 "이 후 (A씨 휴대폰) 복제본이 저장된 대검 색 영장을 집행했어도 당연히 삭제·폐 기됐어야 할 전자 정보를 대상으로 (압 수집행) 한 것이어서 그자체로 위법하 고, 사후에 영장을 받았다고 해서 위법 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수사 기관 이 유관 정보를 선별해 압수한 뒤에도 무관 정보를 삭제 폐기·반환하지 아니

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전자 정 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2022년 1월 선고 와 "첫 번째 영장 집행이 끝났을 때 당 연히 삭제 폐기됐어야 할 전자 정보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은 그 자체로 위 법"이란 지난해 10월 선고와도 궤를 같 이하다

야권은 검찰의 휴대전화 정보 보관 관행에 대해 "민간인 물법 사잘"이라거 나 "위법 압수수색"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달 25일 검찰이 최소 2016년부터 사 건 연루자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 렌식(전자 감식)하면서 취득한 개인 정 보를 '디넷'에 불법 수집하고 관리·활용 해 왔다며 윤석열 대통령 등 전·현직 검 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지원 기자

[센터빌, 첸틀리 지역]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첫 소환 … '윗선'으로 수사망 넓힌다

유재은, 혐의자 축소 과정 개입 혐의 공수처, 경찰과 통화 내용 등 추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 조 사했다. 지난해 7월 채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업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지 9개월 만에 이뤄진 첫 피의자 소환 조사다. 이와 관련, 공수처와 정치권 주 변에서는 채 상병 사건의 '키맨'으로 불 리는 유 관리관의 소환을 계기로 수사 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 측이 나온다.

유 관리관은 채 상병 사망 원인과 책 임 소재 등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혐의자 명단과 조사 내용 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당시 해병 대 수사단의 조사 기록엔 임성근 전 해 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 총 8명에게 업 무상 과실치사 여부가 의심된다는 내 용이 담겼는데, 이에 대해 유 관리관은 박 전 단장에게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 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서 경찰에 기 록을 이첩하라"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유 관리관은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며 "오늘 성실히 답변드릴 것이고 조사 기 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장 후보자로 판사 출신인 오동운(55) 변호 사를 지명했다. 윤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은 지난 2월 29일 국회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 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가운데)이 26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조사 를 받기 위해 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순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한 지 약두달만이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채 상병 사망 사 건의 책임자가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 한 최고위급 지휘부에서 대대장으로 축소되는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이 행사됐는지를 중심으로 수사 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유재은 법무관 리관은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사령 부-경북경찰청 사이에서 지시 내용을 전달하고 진행 상황을 상부에 보고하 는 등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공수처 는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유 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 의 사건 기록이 이첩 직후 회수된 당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 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사 령관 등과 잇따라 통화한 것으로 나타 났다. 유 관리관의 통화 상대에는 경북 경찰청 간부도 포함돼 있었다. 공수처

는이날유관리관을상대로해당날짜 에 경북청 간부와 통화한 이유는 무엇 인지, 누구의 지시를 받아 통화에 나선 것인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집 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또 박 전 단장이 유 관리관 과 통화한 이후에도 지난해 8월 2일 사 단장 등 지휘관을 혐의자로 보는 기록 을 수정하지 않고 경북경찰청에 이첩 했는데, 이 기록이 국방부 검찰단에 의 해 약 7시간 만에 돌연 회수된 점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20일 동안의 재조 사를 거쳐 사망 당시 현장에 있던 대대 장 두 명에게만 혐의를 적용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국방부는 그동안 "유 관리관은 부 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한 바 없다"는 취 지의 입장을 밝혀 왔다. 오히려 국방부



는 박 전 단장이 사건 기록 이첩을 보류하라 는지시를 어기는 항명 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 다. 박 전 단장은 항명 죄 피의자로 기소돼 현

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유 관리관에 대한 조 사 결과를 토대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재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로 수사망을 넓힐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미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출 석을 통보한 상태다.

그런 가운데 공교롭게도 이날 판사 출신인 오동운(사진) 변호사가 공수처 장 후보자로 지명돼 주목을 모았다. 김 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두 명의 후보자 중 오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 다"며 "신속히 국회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를 졸업한 뒤 1998년 부산지법 예비판 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고법 판사 와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 수원지법 성 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2017년 법원을 떠난 뒤 변호사 생활을 이어왔 다. 사법연수원 27기로 윤 대통령(23 기)과는 네 기수 차이다. 별다른 개인적 인연은 없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설명자료를 통해 "법원 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 험과 전문성을 쌓아 왔다"며 오 변호사 지명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후보자였 던 이 변호사는 검사 시절인 2003년 윤 대통령과 함께 대검 중수부에서 대선 자금 수사를 했다는 이력과 관련해 야 권에서 중립성 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기관의 공정 성이란 차원에서 판사 출신이란 점이 인선에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오 변호사는 인선 발표 직후 공수처 를 통해 전한 소감문에서 "고위공직 자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국민적 열망 을 안고 설립된 공수처임에도 지난 3년 동안 그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 다"며 "독립적 수사기관으로 권력기관 을 견제하고 부패 범죄를 일소하는 책 임과 역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 혔다. 한 현직 판사는 오 변호사에 대해 "온화한 인품을 지닌 선배 판사로 기억 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장 지명이 공수처 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특검법안 을 발의한 것과 맞물리는 데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일각에선 공수처장 지명 이 너무 늦어지는 게 수사를 무력화하 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 다"며 "그런데 막상 공수처장을 지명하 자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 한다면 온당하지 않다. 공수처장 지명 과 특검법을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주장했다. 정진우·박태인 기자

빅5 병원 모두 내주부터 '주 l회' 휴진··· 한 총리 "의료 개혁 국민 모두 위한 것"

서울성모병원도 휴진 동참 밝혀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도 휴진 결정

서울성모병원까지 동참하면서 서울의 '빅5' 병원이 모두 다음주부터 진료와 수술을 멈추는 휴진에 들어간다. 가톨 릭대 의과대학 서울성모병원 교수협의 회는 26일 "환자 안전을 위해 교수님의 과도한 업무를 줄일 것"이라며 "찬성률 83.8%로 5월부터 주 1회 금요일 외래・ 수술 휴진을 결정했다. 요일은 자율적 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톨릭대 의대 산하 다른 7개 병원 도 다음주부터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 을 중단한다. 김성근 가톨릭대 의대 교 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이날 통화에 서 "(8개) 병원별·교수별로 자율적으로 5월 이후 주 1회 휴진을 결정했다"며 "다음주 초 8개 병원이 모두 참여하는

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휴진 방식을 논 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서울의 빅5병원은 모두 다음 주부터 하루 혹은 정기적 휴진에 돌입 하게 됐다. 앞서 서울대병원(30일, 이후 정기적 휴진 논의)·세브라스병원(30일 부터 1회)·삼성서울병원(초과 근무 시 주 1회)·서울이산병원(다음달 3일부터 1회) 등 주요 4개 병원이 휴진을 결정한 바 있다. 고려대 안암·구로·안산병원 등 고려대의료원 소속 교수들도 오는 30일 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울대병원 내과 계열 교수는 "휴진 신청서를 내면 외래 직원들이 환자 진 료 일정을 다른 날로 조정해 주는데 그 런 과정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료과별로 차이가 있는데 (휴진 당일) 다 같이 진료를 안 보기로 한 곳도 있고 시간이 촉박해 개별적으

로 참여하는 곳도 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는 금요일처럼 환자가 비교적 적은 요일에 다 같이 진료 안 보 는방식으로가게될수도있다"고 덧붙 였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대위도 이날 온 라인 총회를 열고 주 60시간 이내 근무 를 위한 주 1회 휴진을 결정했다. 당직 후 휴식 보장을 위해 다음날 24시간 쉬 는 방식이다. 비대위는 "정부는 근거 없 는 의대 증원을 고집하며 전공의 복귀 를 막고 있다"며 "진료를 계속 유지하 기 위해서는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 고 주장했다. 이어 "교수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의대 증원을 확정 발표할 경우 휴진 참여 기간 등을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휴진으로 인한 의료 차질이 우려보 다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빅5 병원 관계자는 "개인별로 자율적 참여를 독려해 많지 않을 거로 보인다" 고했다. 다른 병원 관계자도 "당장엔 참 여 교수가 많지 않아 진료를 거의 정상

적으로볼것같다"고전했다.이날지역 에서도 원광대·충남대병원 등이 처음 휴진하기로 한 날이었지만 큰 차질은 없었다. 교수들 사직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사직서를 내고 이날부터 진료를 안 하고 있다는 서울 대형병원의 한 교 수는 "사직서가 수리되면 다른 병원에 취직하거나 안 되면 전공의들과 마찬가 지신세로있게될것"이라고했다.

환자 단체는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 구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의사 단체가 빠진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당장 발등 에 불이 떨어진 환자들은 갈 곳이 없는 데 특위는 현재 상황과 거리가 먼 성잭 적 논의만 진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무용지물의 특위 대신 환 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일선 교수들 사직 명단을 공개 해 환자들이 치료 계획을 세우도록 지 원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의사들의 휴진·사직에 연일 유감을 표하면서도 큰 공백이 없을 것

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병왕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대학본부와 (88개) 대학병 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도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25일 기준으로 실제로 이탈한 의사는 아직 없었다"며 "전문의도 1만 9000명 정도 병원에 있는데 현재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가 한 자릿수"라 고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교수가 현장을 지키 고 전공의가 병원에 돌아올 때 정부와 국민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더 진중하 게 경청하고 더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 라며 대화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의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 며 존경해 온 국민의 간절한 마음을 부 디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의료 개혁은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 고 강조했다. 황수연·문상혁기자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오래가는 임플란트"



Orthodontics

Surgery Invisalign 응급환자 - 치이성형 - 신경치료 **Root Canal** Veneer

Periodontal

invisalign*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natura den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보험 에이전트 모십니다

유니티 보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재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유니티의 강점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유니티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뉴진스 독창성 베꼈나 안 베꼈나, '컨셉트 저작권'이 핵심

방시혁의장이만든걸그룹아일릿 민희진 "뉴진스카피" 항의 확산

'뉴진스 맘' 민희진 표 막장드라마가 장 안에 화제다. 경영권 탈취 의혹으로 하 이브의 감사를 받던 어도어 민희진 대 표가 25일 욕설과 오열로 점철된 분노 폭발 기자회견을 열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막장드라마의 발단은 최근 데뷔한 걸그룹 아일릿이 묘하게 뉴진스를 카피 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뉴진스는 K팝 대표주자 하이브가 SM엔터테인 먼트에서 활약하던 비주얼 디렉터 민 희진을 영입해 만든 레이블 어도어가 2022년 데뷔시킨 걸그룹으로, 'BTS 여 동생 그룹'으로 통한다. 남성들의 판타 지에 기대어 '섹시'와 '청순'을 오가던 걸그룹 클리셰를 뒤집은 독보적인 컨셉 트로 탄생과 동시에 '또래들의 워너비' 가됐다.

그런데 지난 3월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 빌리프랩에서 방시혁 의장이 직접 프로듀스한 아일릿을 두고 민 대 표가 "뉴진스의 컨셉트와 마케팅 방식 을 그대로 베꼈다"며 '내부 고발' 형식 으로 항의한 것. 이에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 민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대표직 사임도 요구받은 민 대표는 "뉴진스의 문화적 성과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의"라고 반발했다.

복잡해 보이는 막장드라마 플롯의 핵심은 '뉴진스의 문화적 오리지낼리 티를 아일릿이 침해했느냐'의 공방이 다. 민 대표는 아일릿 뿐 아니라 보이그 룹투어스·라이즈까지 '뉴진스 아류그 룹'이라며 자신의 오리지낼리티를 주 장했고, '컨셉트 저작권'이라는 신조 어까지 나왔다. 이에 대한 논란은 분 분하다. 뉴진스도 데뷔초 90년대 일본 걸그룹 '스피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블랙핑크 이후 비슷한 걸그 룹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럼 테디는 뭐 냐" "시대의 아이콘이 됐으니 아류의 등장은 당연하다" "민희진의 자의식 과 잉"이라는 댓글도 많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음악시장에서는 '썸띵 뉴', 즉 새로운 것 이 절대적이기에 아이디어와 컨셉트 자 체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임진모 대 중음악평론가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개념을 카피했다는걸 누구나 인정한 다면 민희진도 설득력 있다"면서, 욕설 기자회견을 두고도 "우리나라에서 욕 설까지 해가며 자신만만하게 자기 메 시지를 전한 사람이 있었나. 그런 배짱 으로 만든 게 뉴진스"라고 말했다.





컨셉트 카피 논란으로 떠들썩한 걸그룹 뉴진스(왼쪽)와 아일릿. 뉴진스는 5월말 국내 컴백과 6월 일본 공식 데뷔, 도쿄돔 단독 공연 등을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포토]

업계에선 이 사태를 아이디어 도용에 대한 인식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한 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화평론가로 활동하는 정지우 변호사는 "아이디어가 저작권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컨셉트가 표현된 디자인이나 형태, 색감을 구체적으로 따라하면 저작권 침해라는 접근도 가능하다"면서 "저작권 범위가넓어지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같은다른 법으로 아이디어를 보호할 여지도 있다. 아이돌의 컨셉트가 고도의 노력과 창작성을 갖고 만들어진 것이라면 법형식만 따르기보다 폭넓게 보호할 방법을 찾는게 현대 문화산업의의무"라고 말했다.

하이브가 매출 2조원을 달성하며 국

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꼽혀온 국내외 멀티레이블 체제에 대한 회의론도 나온다. 절대적인 구심점 없이 한지붕 아래서 매출 경쟁을 하다가 이런 사태가 터졌다는 것이다.

임진모 평론가는 "멀티레이블은 음 악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다양성 확보 방식으로, SM이 멀티칼라로 먼저 가동 해왔다"면서 "하이브는 다양성이 아니 라 돈을 좇다보니 예술적 결핍을 자초 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사태로 잠재돼 있던 K팝 위기 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로이터 통신 은 지난해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 간 경영권 분쟁,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와 소속사 간의 분쟁까지 소개하며 이 번 사태가 "K팝 산업을 강타한 여러 분쟁 중하나"라고 보도했다. K팝의 위 기는 산업 과몰입으로 인한 예술성 후 퇴의 결과일 수 있다.

임 평론가는 "최근 아일릿과 르세라핌의 라이브 논란으로 K팝이 산업적 크기만 생각했지 예술적 깊이를 추구하지 않은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브리티시 인베이젼이나 헤비메탈이 성장할때도 시장의 인정과 동시에 예술적 깊이가 있었다. 아무도 K팝의 예술성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 그나마 뉴진스는나름의 자기 행보를 밟았기에 손들어

유주현 기자

민희진 "제 지분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라디오나와경영권탈취의혹반박

25일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 던 민희진(사진) 어도어 대표가 다음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추가 입 장을 전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프로젝트 1945' 문건과 카톡 대화 등 증거 자료를 내놓았다고 하자 "대화에는 문 맥이 중요한데 전후 상황이 다 배제된 일면이 있다"면서 "상상이 죄가 되는 지는 잘 모르겠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 혼자 지분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고 어차피 하이브 컨펌을 받아야한다"고 반박했다.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가 80%, 민 대표가 18%, 직원들이 2%를 갖고 있다.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 피했다'는 언급이 불러온 파장에 대해 선 "뉴진스가 이전 걸그룹 씬의 이미 지랑 다르게 반대로 나와서 화

제가 된 팀이고 그게 기성화 되는 게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지 만 그 밀도와 지점이 있지 않 냐"며 어느 순간 선을 넘었 다고 생각돼 이의 제기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고싶다"고말했다.

이어 그는 "순간 '내가 죽어야 하나' 생각할 때 뉴진스 멤버들이 귀신같이 영상 통화를 걸어 함께 울며 '사랑한다' 고 위로해주니 죽고 싶다는 마음이 빗 겨가더라. 얘네가 나를 살렸나 싶고 더 애틋하더라"며 멤버들과의 끈끈한 유 대관계를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다.

서정민 기자

A대표팀 사령탑까지 투잡 뛴 황선홍 ··· 예견된 '도하 참사'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티켓 놓쳐

돌발 악재라기보다는 예고된 참사였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축구대표팀(23세 이하)이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를 맞아 졸전 끝에 패하며 파리올림픽 본선 출전권을 놓쳤다.

한국은 26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 (U-23) 아시안컵 8강에서 전·후반 90 분과 연장전 30분을 2-2로 마친 뒤 승부 차기에서 10-11로 졌다. 8강에서 멈춘 한국은 이번 대회 4강 이상에 오른 팀



아시안컵 8강에서 인도네시아에 패한 대한민국 선수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사진 대한축구협회]

들에게 주어지는 파리올림픽 본선 출 전권을 놓쳤다. 파리올림픽 아시아 최 종예선을 겸하는 이번 대회 1~3위는 파리올림픽에 직행한다. 4위는 아프리카의 기니와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치러 승리하면 파리행 비행기에 오를 수있다. 한국 축구가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지 못하는 건 지난 1984 LA 대회 이후 40년 만이다. 1988 서울 대회부터 시작한 연속 본선 진출 기록도 9회(세계기록)에서 멈췄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34위 인 도네시아에 덜미를 잡힌 한국(23위)의 부진에 대해 축구인들은 "우려했던 상 황이 끝내 현실이 됐다"고 입을 모은다. 준비 과정부터 미흡했다. 올림픽 아시 아 최종예선을 앞두고 팀 경쟁력을 가다듬는데 전념해야 할 사령탑(황선홍 감독)이 지난달 A대표팀 임시 사령탑 역할을 겸임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 황 감독은 주축 선수들의 갈등을 봉합하고 태국 원정 경기를 승리(3-0)로 이 끄는 등 A대표팀의 급한 불은 껐지만, 정작 본업인 올림픽팀의 완성도는 챙기지 못했다.

'플랜B'에 대한 대비도 부족했다. 배 준호(스토크시티), 김지수(브렌트퍼 드), 양현준(셀틱) 등 해외파 멤버들의 차출이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빈 자 리를 메울 대체재를 제대로 확보해두 지 않았다. 해당 선수들이 최종예선 개 막 직전 줄줄이 불참을 통보하자 부랴 부랴 대체 선수들을 발탁했지만, 중앙 수비수 숫자가 부족해 대회 내내 수비 라인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초 황 감독은 다음달 중순께 선임 예정인 A대표팀 정식 사령탑 경쟁에서 한 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대회 실패와 함께 지도자 인생 최대 위기를 만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A대표팀 임시 사령탑을 선임할당시 박항서 전 베트남대표팀 감독 등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굳이 황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겨 올림픽팀 경쟁력을 떨어뜨린 대한축구협회도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청보리밭 초록물결 경봄날 오후의 햇살을 받은 청보리밭이 윤슬처럼 빛난다. 까칠까칠하게 핀 보리 이삭이 스르륵 스르륵 봄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일렁이는 바다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 제21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한창인 전북 고창 학원농장 풍경이 다. 봄철 가난과 굶주림의 대명사 격인 '보릿고개'의 주인공이 경제 발전 등의 영향으로 경관 농업의 대표 주자가 됐다. 가을에 파종하는 보리는 한겨울 엄동설한에도 녹색 빛을 잃지 않고, 봄이 되면 가장 먼저 넓은 들을 초록 물결로 가득 채운 뒤, 여름이 오기 전 에 누렇게 익어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초록물결 음악노트'라는 주제로 5월 12일까지 이어지는 올해 축제 기간에는 청보리밭을 무대로 재즈와 판소리, 클래식 공연도 열린다. 사진·글=김상선 기자

먼나라 이웃나라 역사 프리즘

영국엔 왜 황제가 없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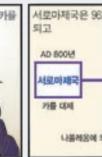




































IRS감사

젠문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세무랑감 김영선 연방세무사

은퇴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소: 평생 연금수입과 통텀케어 보험







- 월 보험료 \$316
- 불입기간- Only 15년
- 사망보상금 보장



유튜브 채널 **SCAN ME**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703-200-1412

우리말 바루기

없어도되는 '~에 있어'

"그는 일에 있어서나 사랑에 있어 열정적이 다"에서와 같이 흔히 쓰는 말에 '~에 있어 (서)'가 있다. 그러나 이는 일본식 표현이다. 일본어에서 '니오이테(において)'란 말이 자 주나오는데 우리말로 옮기면 '~에 있어(서)' 가된다.

이전에는 쓰이지 않던 이 말이 일제시대 들어 흔히 사용됐다는 것은 일본어의 영향 을 받았음을 보여 준다. 요즘은 들어가지 않 은 글이 없을 정도로 남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말에서 '~에 있어(서)'는 대부분 없어도 되는 군더더기 표현이다.

"당신은 나에게 있어 존재의 의미입니다" "마음이 열리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 삶은 고 된 시련의 장일 수밖에 없다"에서 '~있어'는 모두 필요 없는 말로 '~에게'로만 해도 충분

"남녀의 차이는 생리적인 것일 뿐 능력에 있어서는 대등하다"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 서는 확고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에서도 '~ 있어'는 불필요하다. 각각 '능력에서는' '순간 에는'으로하면된다.

다만 "나는 집에 있어서 바깥일은 잘 모 른다"에서의 '어서'는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 는 연결어미로 '집에 있기 때문에'란 뜻이다. "돈이 없어서[없기 때문에] 결혼도 못 한다" 에서의 '어서'와 같은 용법이며 위에서 얘기 한 '~에 있어(서)'와는 다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 낀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 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 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①중앙일보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마이클이 특별칼럼⑥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일본의 미국 공격 예언하다

이승만의 전도로 기독교인이 된 주요인물 두 사 람을 말해 보겠다. 첫째, 1907년 7월 14일 구한말 고종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 화회의에 특사로 파견한 이준 열사가 이승만의 전도로 기독교인이 되었고 이승만을 가장 존경 하였다. 그분은 회의참석이 거부되자 할복자살 한 열사이시다. 다음은 월남 이상제 선생이다. 그 분은 〈조선의 스승〉으로 존경 받던 분이며 서재 필과 함께 〈독립협회〉를 설립하였고 1888년 우 리나라 최초로 미국에 파송한 두 명의 외교관 중 에 한 분이다. 철두철미한 유교선비이던 그가 25 세 연하인 청년 이승만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 이 된 다음에 조선 최초로 YMCA (황성 기독청 년회)를 설립하였다.

1927년 그가 서거하였을 때 서울인구가 30만 이었는데 그의 장례식에는 20만이 모였다고 한 다. 이상제 선생은 기미년 3.1운동 때 배후지원조 종한 인물이며 독립선언문 민족대표 33인의 명 단을, 본인은 빠지고, 그분이 지명 작성하였다.

그가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취조를 받으면서 일경이 3.1운동 독립만세 주동자가 누구냐고 물 었을 때, 간단명료하게 〈하나님〉이라고 대답하 였다.

1904년에 러일전쟁이 발발하였다. 그때 고종 황제는 승전국이 쉽게 조선을 찬탈할 수 있는 역 사의 흐름을 감지하고 강대국에 접근하여 도움 을 요청할 것을 구상하며 국내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인재를 찾다가 한성감옥에 수감되어있는 이승만이 발탁되고, 그를 석방하여 건강을 회복 케 하고 미국에 파송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의 대미활동은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미국에 계속 눌러앉아 학업의 길을 택하 게 된다. 그는 명문대학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학사과정을 마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과



마이클 이 박사 전직CIA요원 시사평론가

정을,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의 수재들도 보통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9년 내지 12년에 걸쳐 마치는데, 이승만은 총 5년 만에 그 과정을 이수했다.

그리고 그는 미국에서 동양인으로서는 최초 의 정치학 박사가 되었으며, 프린스톤 대학교의 학생기념관에는 〈본교가 배출한 최고의 천재는, Korean, Dr. Syngman Rhee〉라고 기록되어 있 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국회연설에서 인용할 정도로 미국사회에서 주목

그는 귀국 후 이상제 선생을 만나 YMCA 활동 에 협력하고 100만 명 기독교신도 운동을 전개 하였다. 1905년 가을에 일로전쟁에서 일본이 승 리하고 예상했던 대로 1910년 8월 29일에 발효된 한일병합(경술년국치)으로 조선은 일본의 식민 지가 되고 국내 유력 애국인사들은 중국으로 망 명하여, 1919년 3.1운동 후, 1919년 4월 11일에 상 해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때 이승만은 임시 정부 초대 국무총리와 초대 대통령을 역임하게

상해에서 그는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하 였다. 무장도 갖추지 못한 독립군 3000명으로는 일본을 상대로 투쟁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 하고 미국과 같은 강대국을 상대로 외교활동을

전개해야하며 강대국의 힘과 영향력을 빌려야 한다는 쪽으로 행동기선을 잡게 된다. 그래서 그 가 그때 (코리아 완충지대론)이라는 책을 저술 하고 미국을 설득하려고 노력 하였다.

그의 이론은, 미국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지원 하고 보호하는 길이 미국의 국제 전략에 주효하 다고 역설하고, 일로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분 명히 머지않아 아세아 패권을 장악한 후에 미국 에 도전할 것이란 점을 암시하였다. 그때 미국은 이승만의 이론을 무시하고 비웃었다. 그러다가 아니나 다를까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1937년에 일본이 중국남경 대학살을 저지르고, 1941년 12월 7일에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다음에 미국정부는 이승만의 예언을 재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승만이 1939년 12월에 워싱턴으로 이주한 후에 저술한 책 〈Japan Inside Out〉이 1941년 6 월에 뉴욕에서 출판되었다. 일본의 본질과 정 체를 폭로하면서 불원간 일본이 미국을 공격한 다는 확신을 언급하였는데, 정확하게 6개월 후 인 그해 12월 7일에 진주만 폭격사건이 발생하였 다. 진주만 공격으로 미군 5000명이 전사하였고 그 후 태평양 전쟁에서는 미국 민간인 군인 도합 300,000명이 희생 되었다.

그 책에서 이승만은, 〈그러나 전쟁은 결국 연합 군의 승리로 끝나고 대한민국 독립의 문이 열리 고 독립된 대한민국은 세계열강과 어깨를 겨누 는 강국으로 성장 할 것)이라고 예언 하였다.

이 때 미국에서는 이승만 재인식의 바람이 불 었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펄벅여사는 이승만 을 20세기 최고의 전략가라고 극찬 하였으며, 펜 타곤은 이 책 수십만 권을 사서 군인들에게 필 독서로 배포하고, 이 책이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Bestseller로 팔렸다.

독자마당

200번째 기고

본인이 가진 지식이나 능력을 활용해 필요한 것 을 얻어가는 것이 삶의 과정이다.

그리고 우리는 삶에 필요한 정신적, 물질적 요 소들을 얻기 위해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쏟아 붓 는다. 물돈 이 과성에서 각자의 가지관이 작용하 게 된다.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 에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 필요하다.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찾아 내거나 새로 만들어야 하고, 있어도 불편하거나 온전치 못하면 고치거나 채워서 완결시켜야 하 는 경우도 있다.

삶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이 모든 과제는 각 개 인이 해결해야 할 것이지만, 또한 사회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관심 을 가져야 할 공동의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사회 공동체에서 개인의 삶은 다른 사람과도 연관을 맺고 있다. 따라서 구성원 모두 이해와 화 합으로 최선의 방향을 찾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생각을 세상 르게 되었다.

는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나는 그중에서 글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내 생 각을 짧은 글로 정리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나 누는 것이다.

그렇게 중앙일보 오피니언면의 '독자 마당' 코 너에 글을 보내기 시작했고 올해로 벌써 12년째 가 됐다. 그리고 이 글은 내가 200번째 보내는 것 이다. 내 나름의 노력으로 쌓인 횟수다. 주변의 격려에 힘을 얻어, 틈틈이 써 온 것이 지금에 이

그러나 매번 "이 글이 신문에 게재될만한 것인 이런 표현 방식의 대표적인 것이 말과 글이기 가"하는 조바심이 들었고 그런 생각은 지금도 여 전하다.

> 세상의 모든 일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나의 글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조금이라 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 윤천모·풀러턴







교통사고 치료 전문

S MERCY 멀시착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24년 임상경험의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손발통증 및 저림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703.256.3005

(한국일보양 건물 2층)



센터빌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셜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AIR CLEANER AND HUMIDIFIER
INDOOR AIR QUALITY PROBLEMS
FURNACES & AIR HANDLERS
NEW FURNACE INSTALLATION
FURNACE REPAIR SERVICE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AC INSTALLATION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LENNUX) Carrier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후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ਰੈ Saturday t



대표전화: (703)281-9660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U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馬히 Full Mouth Case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www.Hanminursingschool.com

추상화부터 실험미술까지… K이트 유산, 세계가 주목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미술축제인 베니스비엔날레(베네치아비엔날레)가 20일 개막했다. 비엔날레 본전시와 각 국가관 전시 외에도 비엔날레 기간에 전세계에서 온 방문객을 사로잡고자 하는 수많은 장외 전시들이 베네치아 도처에서 경쟁을 벌인다. 이중 올해 본전시 총감독 아드리아노 페드로사가 선정한 공식 병행전시 (collateral event)는 30개뿐이다. K아트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한 듯 한국 전시가 3개에 달하는데, 그중 2개는 작고한 작가를 재조명하는 전시다.

먼저, 베네치아의 유서 깊은 퀘리니스탐팔리아 재단에서 유영국미술문화재단이 개최하는 한국 제1세대 추상미술가 유영국(1916~2002)의 회고전 '무한세계로의 여정'이 있다. 대비되는 원색을 대담하게 병치했는데도 불협화음이 없으며 색채가 빛을 발산하는 것 같은 유영국 특유의 회화 29점과 석판화11점을 선보인다.

미국 미술전문지 아트뉴스는 '비엔날 레 기간에 베니스에서 봐야할 전시 10 선'중 하나로 이 전시를 꼽으면서 이렇 게 평했다. "유영국의 1960년대와 70년 대 추상화는 빛나고 밝으며 매혹적인 데, 대조적인 색면이 그들만의 기이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건희컬렉션, RM 소장품도 전시 나와

"그 '기이한 조화'라는 표현이야말로 유영국 회화의 특징을 잘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라고 전시를 기획한 미술 사학자 김인혜 박사는 말했다. "원색을 쓰면서 저런 조화를 만드는 건 쉽지 않 거든요. 바로 그 점에 서구 미술전문가 들도 놀라는 눈치입니다. 세계 주요 미

공인히계시

7535 Little River Tnpk.,#310-B

Annandale, 22003





1 베니스비엔날레 공식 병행전시인 '유영국: 무한세계로의 여정'. 2 베니스 팔라초 카보토에서 7월 7일까지 열리는 신성희 회고전. 3 베니스비엔날레 공식 병행전시 '이성자: 지구 저편으로'를 설명 중인 바르토메우 마리 큐레이터. [사진 PKM·갤러리현대]

술관 관계자들과 컬렉터들이 전시장을 찾고 있는데, 다들 그림 앞에 오래 있더 군요."

그와 관련해 재단 이사장이며 유영 국의 장남인 공학자 유진 카이스트 명 예교수는 중앙SUNDAY와의 인터뷰 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와 '신사실 파' 미술 운동을 함께 하셨고 친하셨던 김환기 화백의 경우, 세계인에게 한국적 인 것을 보여주려고 고민하셨지만, 아 버지는 '내가 한국인으로서 세상 그 누 구도 그리지 못했던 것을 해낸다면 그 게 바로 한국적인 그림이 되지 않겠나?' 라고 하셨어요. 원색의 독특한 조화를 만들어내신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전시에 나온 그림들 중에는 국가 기증 이건희 컬렉션과 방탄소년단리 더 RM의 개인소장품도 있다. 유교수는 말했다. "아버지 그림의 첫 구매자는 고이병철 회장(삼성그룹 창립자)입니다. 그 전에는 한 점도 팔리지 않았어

요. 사람들은 아버지의 그림을 보면 무 엇을 추상화해서 표현한 것이냐고 물으 며 이상해 하곤 했어요. (유영국이 각광 받는) 요즘은 더이상 그걸 묻는 사람이 없지만요." 유영국은 고향 울진에서 산 과 하늘과 태양을 탐구하며, 이들 자연 이 그의 눈과 마음에서 빛을 품은 색채 와 추상적 형태로 구성되는 것을 표현 했다.

유 교수는 덧붙였다. "김환기 화백이 미국에 가셨을 때 아버지도 가고 국제 적으로 활동하고 싶은마음이 있으셨어 요. 하지만 영어를 잘 못해서 미국에 가 봤자 국제미술계와 제대로 교류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가지 않으셨어요. 이제 이렇게 아버지의 작품이 세계인에 게 보이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김 환기는 1963년 뉴욕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의 작품세계의 절정인 전면점화를 발 전시켰다. 유영국은 김화기에 비해 국제 적 명성이 없었으나 최근에 급부상해 지난해 미국 뉴욕 페이스 갤러리에서 첫 해외 개인전이 열렸고 이번에 베니 스비엔날레 공식 병행전시로 세계인에 게 선보이게 된 것이다.

이번 전시는 16세기 베네치아 건축물 이면서 마리오 보타 등 유명한 현대 건 축가가 리노베이션한 곳이라는 장소적 특성을 최대한 살렸다. 운하와 정원을 앞뒤로 접한 1층에서는 한국의 자연을 모티브로 한 석판화를 선보이며, 고풍 스러운 2층에서는 작가의 소형 작품들 과 아카이브 자료들을 서재 같은 분위 기로 전시한다. 현대적이고 심플한 3층 공간에서는 작가의 1960~70년대 절정 기의 대형 회화들을 선보인다.

베네치아=문소영 기자

≫4면 'K아트'로 이어집니다









'팔리는 작품'에 집중, 넷플의 연상호 편애가 불안한 이유

요즘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6부작 드라마 '기생수'는 3중의 모방 버전이자 확장판 리메이크다. 일본 SF 괴수 영화 시리즈인 동명 작품을 가져 왔다. 일본 영화 '기생수'는 출판 만화 가 원조인데 이 작품 또한 일본의 '베 끼기' 특기에 따라 할리우드에서 가져 온 것이다. 그 원판은 1956년 돈 시겔 이 만든, 이 분야 최고 걸작으로 꼽히 는 '신체 강탈자의 침입(Invasion of Body Snatcher)'이다. 돈시겔이후영 화계에 '바디 스내처' 장르가 만들어 졌을 정도이다. 모든 좀비물, 바이러스 영화의 원조 격이다.

'신체 강탈자의 침입'은 어느 날 갑 자기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하는 이야기이다. 겉모습은 멀쩡한데 정신 이 완전히 나가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된 다. 누군가, 뭔가에 의해 완벽하게 지 배당한다. 주인공은 이 모든 것이 어디 로부터 날아 온 이상한 꽃씨 때문이라 는 것을 알게 된다. 사람들이 잠이 들 면 그 꽃은 인간을 다른 존재로 변이 시킨다. 주인공은 잠이 들지 않으려고 기를쓴다.

넷플서 '지옥' '방법 재차의' 등 선보여

'신체 강탈자의 침입'은 핵에 대한 공 포, 혹은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를 상 징화해서 표현해 냈다 해서 주목을 받 았다. 그러나 돈 시겔은 단순히 한 쪽 의 이데올로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 라나 아닌 다른 것에 의한 지배, 그 다 른 것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그리려 했 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는 냉전 시대였고 매카시즘이 한창인 때였던 지라, 돈 시겔의 속 마음은 나중에 가 서야 재평가됐다. '신체 강탈자의 침입' 은 공산주의를 경계하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념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누 군가의 지배 의식을 비판하는 내용일 수도 있다. 이 영화는 그래서 꽤나 양 가적(兩價的)이다.

일본영화 '기생수'는 '신체강탈자의 침입'이 갖는 정치경제학을 완전히 들 어냈다. 거기에 일본인 특유의 기벽이 자 성벽에 해당하는 괴수 취향을 비벼 넣되 그것을 아예 주가 되게 만들었다. 일본 사람들은 환호했다. 오다쿠들이 생겨났다. 이번 넷플릭스의 '기생수' 버전인 '기생수 더 그레이'를 만든 연 상호 감독은 두 가지 모두에서 벗어 나 려고 애를 쓴 흔적이 역력하다. 일본식



1연상호 감독이 만든 넷플릭스 6부작 드라마 '기생수 더 그레이'. 2 동명의 출판 만화를 실사화한 일본 영화 '기생수'. 3 모든 좀비물, 바이러스 영화의 원조 격인 1956년작 '신체 강탈자의 침입' [사진 넷플릭스]

괴수 영화만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점 하나와, 원본에 해당하는 '신체 강탈자 의 침입'이 지닌 복잡한 층위의 이데올 로기 성향으로도 가지 않겠다는 것이 다. 특히 어려운 정치경제학을 결합시 키면 보편성, 대중성을 확장시키기 어 려울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기생수'는 어느 날 외계(에서 온 것 으로 추정되는) 유충이 인간의 몸속 에 들어가 뇌를 파먹고 변이를 일으켜 괴물로 변하게 한다는 설정이다. 주인 공 수민(전소니)은 이 외계 존재에게 완전히 '먹히지 않아' 돌연변이를 일 으킨다. 드라마는 내내, 주인공 수민 을 둘러싸고 동족이라 불리는 기생수 들과 이들을 없애려는 인간들의 전쟁 을 그린다. 남일군 남일 경찰서라는 가 상의 공간에서 경감인 철민(권해효)과 경사 원석(김인권)이 갈등을 일으키고 프로파일러 출신의 경정이자 기생생 물 전담반인 '더 그레이'의 팀장인 최 준경(이정현)이 과욕과 집착을 부리는 이야기이다. 여기에 남일군이 고향인 조폭 강우(구교환)의 에피소드가 겹쳐 진다. 특이한 것은 이 동족들의 집합 장소가 교회라는 점이고 모임의 방식 이 부흥회라는 것이다. 연상호의 트레 이드 마크인 종교 비판의 테마가 중첩

된다.

연상호의 대중 전법이야 말로 넷플 릭스가 연상호를 '최애하는' 이유이 다. 넷플릭스는 연상호와 특이하다 싶 을 만큼 잇따라 작품을 내놓고 있는 바, '지옥'으로 시작해 '방법 재차의' 가 있었고, '정이'가 있었으며 '선산'까 지 만들었다. 이 정도면 거의 편애하는 수준이며 극한의 정도이다. 특히 넷플 릭스 앞에 놓인 국내 영화계의 기획서,





4 넷플릭스 초대형 블록버스터 '레벨 문'. 배두나 가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5 구로사와 아키라의 1954년작 '7인의 사무라이'. [사진 넷플릭스]

시나리오가 천 편이 넘는 것으로 알려 진 점을 고려하면, 연상호는 넷플릭스 로부터 특혜 아닌 특혜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넷플릭스는 왜 연상호를 이토록 '애 모'하는 것일까. 어쩌면 연상호의 작 품에 대한 발상, 작업 방식이야 말로 넷플릭스 철학에 최적화 된 무엇일 수 있다. 연상호는 넷플릭스가 추구하는 최적화된 장르영화를 만들고 있다. 넷 플릭스는 전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둔 다. 이 전체 시장을 관통시키려면 가 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래서 어쩌 면 덜 철학적이고, 덜 어려우며, 특정 의 계급과 계층, 이데올로기에 치우치 지 않는 논조의 영화를 원한다. 누구

> 나,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이더라도, 그 리고 어떤 나라의 어떤 국민이더라 도, 저 얘기가 자신 들의 것과 같은 것이 라는 동일화, 동조화를 일

으켜야 한다.

그러면서도 동질화까지는 가지 말 아야 한다. 연상호의 끈덕지게 이어지 는 좀비물, 종교적 광기에 대한 경계심 리 등등 작품적 요소가 전 세계에서 아주 쉽게, 일반론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이다. '똑똑한' 연상호는 넷플릭 스가 그런 걸 원한다는 걸 가장 잘 이 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으며, 넷플릭스 측과 늘 절충하되 감독의 자존심도 적 당히 내세울 줄 아는 작가가 된 것으 로 보인다. 무엇보다 그의 상상력을 한 국의 CG 능력과 특수효과 기술이 완 벽하게 뒷받침 하고 있다. 그가 '넷플 릭스라는 은하계'에서 거의 최고 등급 으로 올라 간 이유이다. 특히 넷플릭스 는 현재 동남아 시장, 특히 ASEAN 10 개국에서 점유율 1위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현재 동남아 시장 전 체 OTT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여 기에는 K-드라마가 가장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상호의 작품이 내놓을 때마다 거의 매번 톱 위 치로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줄어드는 것이 아무래도 불안해 보인 '기생수'는 4월 8일 공개된 후 4월 14일 까지 일주일 간 980만 뷰를 기록해 글 가 아니라 예술적 정신에서 나와야 한 로벌 시청 1위를 기록했다.

반응을 얻고 있는 것과 달리, 넷플릭스 나 계획대로 해야 할 일이다. 초대형 블록버스터인 잭 스나이더의

'레벨 문'은 망작 중의 망작이라는 비 난을 받으며 두들겨 맞고 있다. 이 작 품은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누어 공개됐 으며 '파트 2 스카키버'는 최근에 올라 갔다. 파트 별로 약 150분 분량이고 제 작비는 약 2억 달러가 소요됐다. 현재 파트 6까지 기획돼 있는 것으로 전해 지고 있다. 넷플릭스는 할리우드가 가 장 사랑하는 '자식' 쯤으로 여기는 잭 스나이더를 데려와 물심양면으로 그 를 후원한 것인데, 한 마디로 '앞으로 벌고 뒤로 손해보는 꼴'이 됐다.

초대형 블록버스터 '레벨 문' 망작 평가

잭 스나이더의 이 저급한 SF도 '기생 수' 처럼 어디서 가져 온 것이긴 하다. 한 마을을 지키기 위하여 다수의 용 병들을 선발해서 데려온다는 이야기 는 일본의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의 1954년작 '7인의 사무라이'와 판박이 다. 아키라의 이 전설적 영화는 안톤 후쿠아 감독이 2016년에 '매그니피센 트7'로 리메이크 하기도 했다. 이병헌 이 출연한 작품이다. '레벨 문'에는 배 두나가 출연한다. 넷플릭스의 '단순 무식' 제작 원칙에 따라 '레벨 문'에 는 '7인의 사무라이'가 표방하는 사회 적, 개인적 정의의 간극이 어떻게 시 대에 따라 변질되는가 따위의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

넷플릭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들이 초기에 보여 준 예술 지상주의 스 피릿이 모두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복원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넷플릭스 는 초기에 현대 영화사의 전설로 꼽히 는 오손 웰즈의 미완성작 '바람의 저편 (The Other Side of the Wind)'을 프 로듀서였던 피터 보그다노비치와의 협업을 자청해 완성하기도 했다. 2018 년에는 알폰소 쿠아론의 '로마'를 만들 어 아카데미 감독상을 타기도 했다. 넷 플릭스가 연상호를 애정하는 것은 누 가 뭐라 할 것이 아니다. 대대적으로 실패했다 해도 잭 스나이더를 좋아하 는 것도 뭐라 할 수가 없다. 다만 작은 영화, 의미 있는 작가영화에의 관심이 다. 넷플릭스의 장기 플랜은 비즈니스 다. 그것이 초기 넷플릭스의 계획이었 '기생수'가 평단에서 다소 엇갈리는 다. 스틱 투 더 플랜. 인생이나 사업이

오동진 영화평론가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사람 사람 **중앙 Saturday** + 2024년 4월 27일 토요일

"국보·보물만 26건 기증한 선친, 통일되면 북에 박물관 꿈"

아들 송철이 기억하는 아버지 송성문

70년대 일타 강사, 책 1000만부 팔려 고서·도자기 등 다양한 문화재 수집 2003년 암선고 받고 유물 모두 기증 "생전 고서들 보존 의무감 가지셨다"

국립중앙박물관 기증실 개편 재개관 기증자들 이야기 디스플레이에 상영

국립중앙박물관(국박) 동관 2층의 기증관이 2 년간 전면 개편 작업을 거쳐 올해 초 새롭게 문 을 열었다. 예술적으로 디자인된 의자에 앉아 휴 식을 하면서 벽장에 진열된 기증 유물들과 맞은 편 거대한 디스플레이에 상영되는 기증자들의 이야기를 차분히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다. 얼마 전 이 곳을 둘러보다 익숙한 이름과 마주쳤다. 혜전 송성문(1931~2011), 혹시 그 유명한 '국민참 고서'의 저자? 박물관 관계자에게 확인해보니 1970~90년대를 풍미한 대입용 영어 참고서 『성 문종합영어』의 저자와 동일 인물이었다. 그가 국 보 4건과 보물 22건을 포함, 무려 46건 101점의 문 화재를 국박에 기증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송 성문 컬렉션은 고서(古書)와 회화 작품이 주종을 이뤘다.

"고서 거풍할 때마다 와서 보라고 하셨죠"

지가 이리 와서 보라고 하는데 아이들 이 고서 같은 걸 아나요. 그냥 시큰 둥해 했는데 '나중에 네가 관리해 야되니봐 둬라'고 하셨지요. 유독 『기사기해계첩』은 재미있었습니 다. 요즘 사람이 그린 것처럼 생생해 서 놀라웠죠." 그는 말했다. 『기사기해



혜전 송성문이 기증한 1 『기사기해계첩』 (조선 1719년, 국보). 2 수석과 함께 한 생전의 혜전. 아래는 『성문종합영어』 표지. [사진 국립중앙박물관·송철 제공]

선 이북의 최고 대학인 김일성대 영문과를 꿈꾸 었다. 그러나 출신성분 때문에 탈락하고 2년제 신의주교원대에 들어갔다. 6·25전쟁이 일어나고 그해 11월 미군이 신의주에 진주했다. 그는 미군 앞에서 중학 영어교과서를 읽다가 통역으로 발 탁되었다. 그러나 미군이 1·4 후퇴 때 평양에 그 를 남겨놓고 퇴각했고 그는 갖은 고생을 하며 홀

> 로 월남해 부산까지 내려갔다. 52년에 입대해 통역장교로 활약했다.

평소 나서기 꺼려 기증도 대리인 통해

그후 부산 동아대 영어영문학과를 졸 업한 혜전은 부산고와 마산고에서 교 사로 재직했다. 영어를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다. 서울에서 출

판사 대표가 찾아와 계약금 200만원과 1년 기한 을 주며 영어 교재를 써 달라고 했다. 당시 200만 원은집한채 값이었다. 이렇게 해서 1967년에 탄 생한 『정통종합영어』가 대박을 쳤고 후에 『성문 종합영어』가 되었다. 그 뒤 서울에 올라와 서울 고에서 교사 생활을 잠깐 하다가 종로 경복학원 씀이 많지 않으시고 희로애락을 별로 소문난 '일타 강사'였다. 1976년 자신의 출판사인 못 알아봤을 겁니다"라고 했다. 혜전의 또다른 성문출판사를 만들어 『성문종합영어』를 비롯한 수집 대상은 수석이었다. 그는 생전에 "돌 안에 성문 시리즈를 냈다. 『성문종합영어』는 2011년까 자연이 다 들어있다"며 "수석 수집이 군자(君子) 고비를 많이 넘기고 하셔서 그런 지 1000만 부가 넘게 팔렸다고 한다. 1990년대에 의 마지막 취미"라고 했다. 별세하던 해에 책 『수 대입 시험 제도가 바뀌고 경쟁 참고서가 늘어나 석과을 출간하기도 했다. 그는 별세 1년 전인 2010 혜전 송성문은 평북 정주 출신으 면서 판매량이 급감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명맥

혜전은 학원 강사와 교재 출판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돈을 문화재 구입과 수석 취미에 썼다. 그 렇게 수집한 11세기 고려시대 대승불교 경전 『 대보적경』을 비롯한 국보 4건과 보물 22건, 운보 김기창의 그림 '동해일출도' 등 총 46건 101점을 2003년 3월에 국박에 기증했다. 그 공로로 그해 6 월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이런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건 그가 기증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3년에 기증 의사를 밝힐 때에도 직접 박물관 에 나타나지 않고 대리인을 보냈다. 대리인은 바 로 혜전의 고서 수집을 도운 고인쇄 전문가였다. 당시 국박 전시과장으로서 기증 업무를 담당했 던 장상훈 현 국립진주박물관장은 이렇게 회고 했다. "(국박을 찾아온 대리인인) 노신사의 손에 는 국보 4건, 보물 22건 등의 물목이 빼곡히 적혀 있는 기증희망원이 들려 있었다. 정말 놀라지 않 을 수 없었고 흥분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한눈에 보기에도 우리나라 고인쇄 문화재의 정수가 고 스란히 담긴 목록이었다."

혜전은 자신의 애장품을 박물관에 기증하던 날에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던 날에도, 기증문 화재 특별전이 열리던 날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장 관장은 "송성문 선생은 고귀한 나눔 의 정신을 실천하셨고, 그럼에도 자신의 공을 결 코 드러내지 않는 겸손의 미덕을 가르쳐 주셨다" 라고 평했다. 아들 송씨에게도 그런 기질이 유전 된 탓인지 그는 인터뷰 요청을 여러 차례 사양하 고 전화로만 말문을 열었다.

혜전의 수집과 기증이 특히 빛난 것은 고서에 서다. 그가 고서에 특히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송 전 대표는 말했다. "고서들이 자꾸 훼손되니 까 더 없어지기 전에 빨리 보존해야겠다는 마음 이 강하셨어요. 금속활자를 세계 최초로 발명했 지만 잘 보존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시면서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이사 가면 집에 바르는 초배지를 고서를 뜯어서 사용하고 그랬 어요. 안 믿기겠지만 진짜입니다. 1960년대 부산 에서 살았는데, 이웃집들이 다 그러더군요. 당시 에 고물상에 널린 게 옛 책들이었으니까요. 1990 년대 되니까 서울 인사동의 전통 찾집이나 막걸 리집들이 그걸 흉내내서 고서를 뜯어서 창틀에 붙여놓고 그랬죠."

혜전은 별세 직전의 인터뷰에서 "그림이나 도 자기는 가짜가 많지만 고서는 그리 쉽게 속일 수 없다"고 말했다. "집에 도둑이 든 적도 있지만 값 년 애장하던 수석 한 점을 국박에 기증했다.

문소영 기자

"사실 아버지는 통일이 되면 고향인 평안북도 정 주에 박물관을 세우겠다는 꿈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고서뿐만 아니라 도자기 등 여러 유물을 수집하셨습니다. 하지만 (생전에 통일이 될) 가 능성이 희박해지고 2003년 간암 선고를 받으시 면서 그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을 하시게 된 것이지요." 수소문끝에 연락이 닿은 장남 송철 (65)씨의 말이다.

"아버지는 어떤 의무감 같을 것을 갖고 계셨어 요. '태어나서 좋은 일 하나는 해야 한다. 내가 돈 벌어서 뭐 하겠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수집하신 것들을) 다 사회로 돌려보낼 것이라면서 '너희들이 철 들면 알아듣겠지' 하 고 설명하시곤 했어요. 오히려 우리 삼남매는 뭘 굳이 설명하시나 의아해했죠. 기증하실 때에도 형제들은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송씨는 아버지가 가끔 보자기에 싸서 보관해 두었던 고서를 때마다 꺼내 바람을 쐬게 하는 거 풍을 하는 것을 지켜보던 기억이 있다. "아버

로, 1719년 기해년에 숙종이 59세가 되 어 기로소(연로한 고위 관료의 친목과 예우를 위

계첩』은 국박에 기증된 국보 중 하나

한 기구)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여 제작한 화첩이 다. 참석한 70세 이상의 퇴직 관리들의 초상화와 기념행사를 묘사한 그림들로 이루어진 화첩이 다. 송씨는 "하지만 아버지가 수집품들에 대해 자상하게 설명해주는 편은 아니었다"고 덧붙였

> 표현을 안 하시는 타입이었어요. 이 북에서 월남을 하고 그러면서 생사 것같아요."

로 중등학교를 우등 졸업한 후 당시 38 을 이어가고 있다.

보험료가 반값! 바로 확인해 보세요~! A

지금 연락 주세요!

사업체 보험

직장상해보험

메口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은퇴연금

703-537-9899 | 703-591-0009

(경 기독자) 보여로 한 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미국 굴지의 탑 보험회사가 오퍼하는 확실한 보험" • 저렴한 보험료



*Top Major 보험회사와의 직접연계로 확실한보장, 저렴한 보험료, 안전한 회사





• 확실한 커버 • 신속 친절 서비스







571-232-0702 | 703-591-0009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페어팩스 법원 건너편/모스비 타워)

로봇 연극 vs 인형 뮤지컬 … '천 개의 파랑' 색깔 다르네

"내 이름은 콜리. 브로콜리를 닮아 붙 여진 이름이다."

신장 145cm의 아담한 체구, 앳된 기 계 음성이 첫 대사부터 관객을 집중시 켰다. 동그란 LED 패널 얼굴에 앙증 맞은 초록빛 타원형 눈이 두 개. 코와 입은 없고, 대사는 가슴에 내장된 스 피커로 흘러나온다. 국립극단이 개발 한 로봇 배우 '콜리'가 16일부터 28일 까지 서울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에 서 공연하는 연극 '천 개의 파랑'으로 무대 데뷔했다.

2018년 대구오페라하우스가 한국 생산기술연구원과 손잡고 휴머노이드 로봇 디바 '에버5'와 성악가의 오페라 대결을 선보인 바 있다. 하지만 로봇 배 우가 상영시간 150분의 장편 연극 주 연을 맡은 건 이례적인 일이다. 콜리는 내장 배터리를 완충하면 6시간 넘는 공연도 거뜬하다고 한다.

원작은 2019년 출간돼 15만부 이상 판매된 천선란 작가의 동명 SF 소설이 다. 낙마 사고로 하반신이 부서진 휴머 노이드 로봇 기수 콜리가 장애 청소년 은혜(류이재), 로봇공학에 능한 동생 연재(최하윤) 자매와 힘을 합쳐 안락 사 위기의 경주마 '투데이'를 구해내는 여정을 그렸다. 마침 서울예술단도 같 은 원작의 창작 뮤지컬을 다음달 12일 부터 26일까지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 당에서 공연한다. 연극 버전이 콜리 역 에 실제 로봇을 출연시켰다면, 뮤지컬 버전은 첨단 로봇을 수공예 방식 퍼펫 (Puppet·인형)으로 만들었다.

"초연결 시대에 더 고독한 우리의 사는 모습을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로 봇' 콜리를 통해 반추하고자 했다."(연





천선란 작가의 SF 소설 '천 개의 파랑'이 연극과 뮤지컬로 탄생했다. 연극에선 배우 김예은(왼쪽부터)이 콜리의 대사와 움직임 보조 등을 맡았다. 뮤지컬은 펜타곤 진호(콜리), 오마이걸 효정(연재)이 각각 더블 [사진 국립극단, 서울예술단]

SF 소설 원작, 연극·뮤지컬 격돌 연극선 앳된 기계음성 로봇 등장 대사·움직임은 실수 없이 연기

극 연출 장한새)

"로봇과 동물과 인간의 상관관계에 서 역설적으로 찾을 수 있는 따뜻한 휴 머니즘을 무대적 상상력으로 전달하 겠다."(뮤지컬 예술감독 이유리 서울예 술단장)

각 제작진이 던진 출사표다.

18일 뮤지컬판 제작발표회에 참석 한 천선란 작가는 "연극·뮤지컬을 작 년 이맘때 비슷한 시기에 제안 받았다" 고 했다. 먼저 본 연극 '천 개의 파랑'에 대해 그는 "LED 화면을 다채롭게 썼 다. 한 무대에서 다양한 공간을 연속 적으로 표현한 게 인상 깊었다. 연극을 보며 뮤지컬은 어떨지 기대감이 더 많

이 생겼다"고 관람평을 남겼다.

연극 '천 개의 파랑'은 당초 4일로 예 정한 개막 직전 로봇 결함 탓에 개막을 2주나 늦췄다. 리허설 중 전원 꺼짐, 움 직임 버퍼링 현상이 나타나 초반 10회 차 공연을 취소하고 배선 회로 및 소프 트웨어를 전면 수정했다.

연극은 우려 속에 베일을 벗었지만, 관객 반응은 우호적이다. 예매사이트 인터파크에선 "원작의 문어체 문장을 그대로 옮긴 부분이 지루했다"는 평도 있지만, "로봇배우가 신선했다"는 반 응이 많았다. 공연을 관람한 한 여성 관객은 "콜리 대사가 눈물 버튼이었 다"고 평했다.

콜리는 사람의 조작이 필요한 반자 동 로봇이다. 목과 팔의 관절은 자동화 됐지만, 하반신은 뒤쪽 손잡이를 밀어 줘야 허우적대며 걷는 것처럼 보인다.

대사 연기는 무대 뒤 오퍼레이터가 실 시간으로 미리 입력한 대사가 나오게 했다. 조명 장치 작동과 같은 원리다.

콜리와 비슷한 체구의 배우 김예은 이 콜리 내면 대사 및 내레이터로 출연 하고, 콜리 목소리 사전 녹음(이후 로 봇 음색으로 후보정), 공연 중 몸통 연 기까지 도왔다. 사람처럼 스스로 연기 하는 수준엔 못 미쳤지만, 대사와 움직 임은 실수 없이 해냈다. 어휘가 1000개 로 제한된 콜리의 대사는 표정과 어조 변화가 없는 로봇 말투 덕에 관객 저마 다의 해석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장한새 연출은 22일 본지와의 통화 에서 "창작진도 연습 과정에서 로봇 뒤 에 사람의 목소리와 손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콜리를 마주할 때 연기 질감이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로봇 이 배우로서 무대 위에서 교류하고 호 흡을 맞추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 능성을 엿봤다"고 했다.

다음 달 공연을 앞두고 한창 막바지 준비 중인 뮤지컬에선 배우와 인형사 등이 3인 1조로 콜리를 연기할 예정이 다. 뮤지컬 배우 윤태호, 아이돌그룹 펜타곤 멤버 진호가 주연에 더블 캐스 팅돼 머리 부분을 연기하고, 팔·다리 는 인형사가 움직인다. 경주마 투데이 도 퍼펫이다. 이지형 퍼펫디자이너가 작품 성격에 맞춰 "3D 모델링을 통해 구동 방식은 로봇 형태지만, 퍼펫 조종 법을 활용한"결과물로 완성했다.

미래 SF 장르에 맞춰 음악도 차별화 했다. 박천휘 작곡가는 "콜리의 탄생 순간 첫 노래는 전자음악 요소를 썼다. 컴퓨터 이진법의 0과 1을 도·레 음에 적용한 음악도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나원정 기자

» 1면 'K아트'에서 이어집니다

(1918~2009) 회고전 '지구 저편으로'가 비엔날 레 공식 병행전시로서 11월 24일까지 열린다. 전 시 기획은 이성자 탄생 100주년 회고전이 2018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릴 당시 관장이었던 독립 큐레이터 바르토메우 마리가 맡았다. 주최는 한 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 이성자기념사업회, 갤러 리현대다.

이성자는 김환기, 유영국 등 한국 제1세대 추 상미술가들 중에 유일한 여성 작가다. 남편의 외 도로 이혼하고 파리로 떠난 뒤 모국의 모친과 아 이들을 그리워하며 땅을 경작하듯 캔버스에 유 채 물감을 점점이 쌓아 올린 '여성과 대지' 연작

을 창작했다. 이 연작으로 파리 화단의 인정을 받 고 한국에 금의환향해 개인전을 열고 성장한 자 한편, 베네치아의 아르테노바에서는 이성자 식들과 재회했다. 그후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마천루에서 내려다본 기하학적 도시 풍경을 자 연의 요소와 결합하는 등 다양한 추상화 연작들 을 계속 실험했다.

> 특히, 하나의 원반을 요철이 있는 두 반원으로 쪼갠 형상의 독특한 음양(陰陽) 기호를 창작해 향후 작품에 지속적으로 등장시켰다. 작가의 말 대로 "동양과 서양, 자연과 기계의 합일"을 추구 하는 작품이었다.

유영국 전시, '비엔날레 전시 10선' 꼽혀

이번 베네치아 전시에 나온 20여 점은 초기 연작 '여성과 대지'와 후기 연작 '지구 반대편으로 가

는 길' '우주'이 주를 이룬다. 전시장에서 기자들 과 만난 마리 전 관장은 남성과 서구 중심의 사회 와 예술계에서 여성으로서, 또한 프랑스에서 활 동하는 한국인으로서 "미술 안팎으로 '타자(他 者)'였던 이성자는 올해 베니스비엔날레 본전시 의 테마 '외국인은 어디에나 있다'와도 긴밀한 연 관성을 갖는다"고 밝혔다. 또한 작가가 추구한 음 과 양, 인간과 자연의 결합 등이 현대에 영감을 주는 바가 크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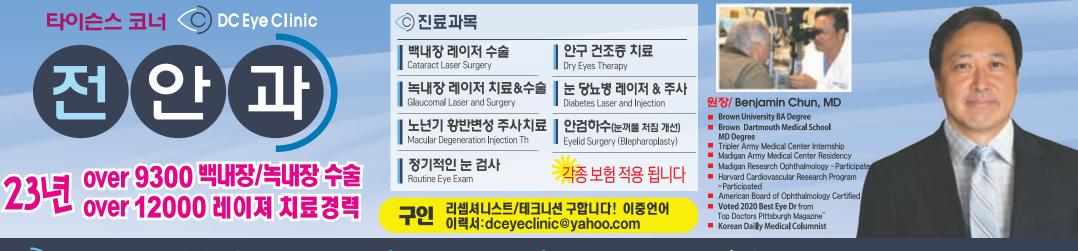
한편, 비엔날레 공식 병행전시는 아니지만 한 국의 작고 작가를 베네치아에서 선보이는 주요 전시가 또 하나 있다. 갤러리현대가 팔라초 카보 토에서 7월 7일까지 여는 신성희(1948~2009) 회 고전이다.

갤러리현대 도형태 대표에 따르면 신성희는

"파리에서 30년을 살면서 평면의 화면에서 입체 회화에 대한 고민을 탐구한 독보적인 작가"다. 그 러한 탐구 과정에서 캔버스를 채색한 다음 일정 한 크기의 띠로 재단하고 그것을 박음질로 이은 '박음 회화' 연작(1993~1997)과 캔버스를 아예 띠로 잘라내 지지체에 묶어서 평면과 입체의 통 합을 이룬 '엮음 회화' 연작(1997~2009) 등 19점

신 작가의 장남인 건축가 신형철 교수는 전시 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화적인 효과와 평면에 서 벗어난 효과가 공존하는 중간적인 특징을 관 람객들이 주목해주셨으면 한다"며 "내가 건축가 가 되고 여동생이 패션 디자이너가 된 이유는 모 두 아버지 작품의 영향"이라고 했다.

문소영 기자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악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십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 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Tel: 703.231.5572



센터빌 타운홈 방3+화2/2+차고2 2004년집. 넓고 환한 엔드유닛 *\$650,000*



센터빌 타운홈 방3+화2+차고2 H마트 부근

\$560,000

타운홈 방3+화3.5 2.184sqft, 2000년



콘도 방2+화2+차고1 1,270sqft, 2002년 콘도비 \$463

\$430.000

힘든 세입자나, 밀린 랜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비키 리 브로커

네ル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 **HXILIO**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소중한 가족 건강

우메켄덕좀보세요

우메켄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최고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족은 물론, 소중한 분들께 최고의 제품으로 건강을 선물하세요. ▶ 6월 2일까지



이벤트1

이벤트2

우메켄 전제품 중 **동일제품 2개 구입 시**

발효 미네랄 L칼슘
구입 시

WINERAL

Free
Ciff

L-칼슘(2달분)
무료 증정
- 이벤트 1, 2 중복 적용 안됨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홈런왕 최정의 다짐, "500홈런까지 쳐야죠"

19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도 달성 상대한 투수 중 263명에게 홈런 쳐 "기록세웠으니 편하게 타석 설 것" 홈런볼 주인공은 KIA 팬 강성구씨 SSG에 기증. 1500만원 상당 보상

"개인 통산 500홈런은 달성할 수 있겠 죠? 저도 욕심납니다."

프로야구 SSG 랜더스의 최정(37)이 활짝 웃었다. 지난 24일 롯데 자이언츠 와의 부산 원정경기에서 올 시즌 10호 이자 개인 통산 468호 홈런을 기록한 뒤였다. 최정은 이 홈런으로 이승엽 두 산 베어스 감독이 갖고 있던 종전 기록 (467개)을 넘어 역대 최다 홈런 1위로 올라섰다. 앞으로 최정은 홈런을 추가 할 때마다 KBO리그 최다 홈런 기록 을 새로 쓴다. 통산 홈런 1위 자리를 13 년 만에 후배에게 물려 준 이승엽 감독 은 "최정이 앞으로 500홈런 시대를 열 것 같다. 600홈런까지도 칠 수 있는 타 자"라고 덕담을 했다.

최정은 "이승엽 감독님의 기록을 넘 어섰다니 '가문의 영광'이다. 아직도 실감이 안 나지만, 나 자신이 자랑스럽 다"며 "600홈런은 어렵겠지만, 500홈 런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다. 이제 더 큰 목표를 품고,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최정이 세운 값진 기록이 하나 다"며 "최다 홈런도 달성했고, 홈런 10



24일 롯데전에서 KBO리그 통산 468호 홈런을 때려낸 뒤 꽃다발을 받아 든 최정.

더 있다. 그는 올 시즌 10홈런 고지를

밟으면서 2006년부터 19년 연속 두 자

릿수 홈런 기록을 세웠다. 최정은 이

미 2021년 장종훈(1988~2002년)과 양

준혁(1993~2007년)의 15년 연속 두 자

릿수 홈런 기록을 뛰어넘었고, 그 이후

해마다 역대 최장 기록을 늘려왔다. 다

음 시즌에도 홈런 10개 이상을 때리면

20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이라는 위업

다. 내 기록을 내가 깨나가는 게 좋아

서 그동안 이 기록을 목표로 달려왔

최정은 "특히 애착을 가진 기록이

을 달성한다.

개도 채웠으니 편하게 타석에 설 수 있 가로 올해와 내년 SSG랜더스필드 라 을것같다"고말했다.

최정이 신기록 카운트다운을 시작 하면서 그의 468호 홈런공을 누가 손 에 넣게 될지도 관심거리였다. SSG 구 단은 역사적인 홈런공을 돌려받기 위 해 미리 총 1500만원 상당의 보상을 약 속했다.

행운의 주인공은 서울에 사는 KIA 팬 강성구(37)씨였다. 취미로 사회인 야구를 하는 강씨는 회사 프로젝트 때 문에 부산에 머물다 이날 최정의 홈런 공을 잡기 위해 사직구장을 찾았다. 강 씨는 홈런공을 최정에게 돌려주는 대

이브존 시즌권 2매, 최정의 친필 사인 배트와 선수단 사인 대형 로고볼, 내년 스프링캠프 투어 참여권 2매, 이마트 온라인 상품권(140만원), 스타벅스 음 료 1년 무료 이용권, 호텔 숙박권(75만 원), 상품권(50만원) 등을 받았다.

[연합뉴스]

강씨는 "오타니 쇼헤이처럼 전날 집 에 들어가다 휴지를 주워 쓰레기통 에 버리는 선행을 했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긴 것 같다"며 "그래도 KIA 가 우승했으면 좋겠다. 우리 김도영 (KIA) 선수가 최정 선수처럼 홈런을 많이 치는 스타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최정은 24일까지 기록한 홈런 468 개 중 홈인 인천에서 절반이 넘는 253 개(54%)를 터트렸다. 그다음으로는 한 화 이글스의 홈인 대전에서 34개, 두 산 베어스와 LG 트윈스가 함께 쓰는 잠실에서 31개를 각각 때렸다. 최정에 게 가장 많은 홈런을 헌납한 팀도 한화 다. 15%에 해당하는 68개를 한화전에 서 쳤다. 삼성 라이온즈(63개), 두산(56 개), KIA(53개), 롯데(52개)도 자주 홈 런의 희생양이 됐다.

최정이 홈런을 친 상대 투수는 총 263명. 한화와 KT 위즈에 몸담았던 안 영명이 8개로 가장 많은 홈런을 허용 했다. 롯데와 두산에서 뛴 장원준이 7 개로 뒤를 이었다. 현역 투수 중엔 롯 데 박세웅과 KIA 양현종이 6개로 최 정 상대 피홈런이 가장 많았다.

2007년 SK에 입단한 뒤 최정과 함 께 뛰고 있는 김광현은 "16~17년 전 형 과 내가 서로 승리 수와 홈런 수를 놓 고 내기를 했던 추억이 떠오른다"며 "아마도 내가 최정이라는 타자가 친 홈 런의 혜택을 가장 많은 선수일 것"이라 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때마침 롯데 더그아웃에서 친형의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게 된 동생 최 항(30)도 "어릴 때 옥상에서 혼자 훈련 하던 형의 모습이 기억난다"며 최정의 대기록 달성을 축하했다.

배영은 기자

'더 CJ컵 바이런 넬슨' …PGA 투어에 K컬처 심는다

두 대회 통합 ... 내달 텍사스서 개막 총상금 131억, 정상급 156명 출전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더 CJ컵 바 이런 넬슨 골프 대회가 5월 2일(한국시 간) 미국 텍사스의 TPC 크레이그 랜 치에서 개막한다. 총 상금 950만 달러 (약 131억원), 우승 상금 171만 달러(약 23억원)가 걸린 대회다.

바이런 넬슨 대회는 한국 선수와도 인연이 깊다. 2013년 배상문이 처음 우 승을 차지했고, 2019년에는 강성훈이 정상에 올랐다. 또 이경훈이 2021년과 2022년 잇달아 우승했고, 지난해엔 김 시우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국내 기업인 CJ가 올해부터 80년 역 사를 가진 바이런 넬슨 골프 대회의 공



더 CJ컵 바이런 넬슨은 ...

출범: 2017년 10월(국내 최초의 PGA 투어 대회) •개최지 이전: 코로나19로 2020년 미국으로 이동 명칭 변경: 올해부터 기존 바이런 넬슨 대회와 통합

•**역대 우승자** : 저스틴 토마스(2017·2019년), 브룩스 켑카(2018년), 제이슨 코크랙(2020년), 로리 매킬로이(2021·2022년)

•일정 및 장소: 5월 2일 TPC 크레이그 랜치서 개막 ·**총상금:** 950만 달러(약 131억원)

더 CJ컵 바이런 넬슨을 공동 주최하는 존 드라고 수석 이사와 스콧 우드 사장, 김유상 CJ그룹 상무, 제인스 에스퀴벨 운영위원장, 제시카 고메즈 수석 이사(왼쪽부터).

난해까지 8월에 더 CJ컵 골프 대회를 개최했지만, 올해부터는 5월로 시기를 옮기면서 더 CJ컵과 바이런 넬슨 대회 스콧, 윌 잘라토리스, 슈테판 예거 등

동 주최자가 됐다. CJ는 2017년부터 지 를 통합했다. 앞으로 10년 동안 '더 CJ 국으로 옮겼다. 컵 바이런 넬슨'을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대회에는 제이슨 데이와 아담

모두 156명의 정상급 프로골퍼가 샷 대결을 펼친다. 한국의 강성훈과 이경 훈을 비롯해 안병훈·김시우·임성재·김 주형 등도 출전한다. 주최 측인 CJ는 지난 80년 동안 바이런 넬슨 대회 챔피 언들의 이름을 한글로 새긴 우승 트로 피를 준비했다.

2017년 출범한 더 CJ컵은 국내 최초 의 PGA 투어 대회로 세계적인 관심 받았다. 제주도의 명문 골프장인 클 럽 나인브릿지에서 정상급 골퍼들을 맞이하며 국내 골프의 저변을 넓혔다.

06)은 통산 51승을 거둔 PGA 투어의

두면서 전성기를 맞았다. 1944년 출범 한 댈러스의 지역 대회가 1968년부터 PGA 투어로 편입됐는데 이때 텍사스 를 대표하는 넬슨의 업적을 기리기 위 해 대회명에 그의 이름을 넣었다.

80년 전통을 이어받은 CJ그룹은 이 대회를 골프 마케팅의 전초기지로 활 용할 계획이다. 글로벌 전략 브랜드 (비비고)를 앞세워 K푸드와 K컬처를 PGA 투어 선수와 관계자, 갤러리에게 선보인다. 전문 셰프들이 다이닝 서비 스를 제공하고, 새로 개발한 다양한 한 식 메뉴도 판매한다. CJ그룹 관계자는 "더 CJ컵의 도전 정신과 바이런 넬슨 의 전통이 함께 어우러지는 PGA투어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개최지를 미 대회를 개최하게 돼 뜻깊다. 한글로 우 승 트로피에 챔피언 이름을 새긴 것도 텍사스 출신의 바이런 넬슨(1912~20 바로 그런 취지"라면서 "더 CJ컵 바이 런 넬슨을 PGA 투어의 메이저급 대회 레전드다. 특히 1945년에는 18승을 거 로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고봉준기자

20대 초입의 청년들도 부러워 할 만큼 중장년층 여성과 남성들에게 세상사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주는 성인전용 상품 L C Plaza. P.O. Box 2831. Garden Grove. CA 92842. 전세계 어디서나 1-213-210-9720 (상담 및 주문), 인터넷 주소: www.yyykkk.com (지불 방법 : 무통장 은행입금 (Bank of America에 직접 입금), 체크 또는 머니오더 송금, 현금 구매, 모든 Credit 카드, Debit 카드, Check 카드)

남성들의 원기회복과 정력 보강에 특효로 알려진 한방 보약재와 천연 생약재 발효 성분으로 구성된 무결점 부작용 천연 비아그라는, 미국 파이저사의 비아그라를 복용했을 때, 케미컬 성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 문제가 전혀 없는 남성 성기능 강화 제품으로서, 지난 26년간 이어져온 꾸준한 판매실적과, 고객들의 한결 같은 사랑으로 100% 안정성과 효능이 입증된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70~80대 남성도 20대 초입의 건장한 청년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5 캡슐 1 병 & 20 캡슐 1병, 두 종류의 제품 구비



▶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발기가 잘 안되는 경우 ▶ 강직도가 충분치 못하거나 일찍 풀리는 경우 ▶ 비아그라를 먹어도 전혀 효과 없는 분께 특효

▶ 내성이 전혀 없는 자연 치유력 증진 효과 보장 ▶ 여성이 너무 좋아하는 최고 강직도와 지속성

여자가 생각날 때 1 캡슐만 복용하면 1 시간 경과 후에 여성의 엉덩이나 가슴을 쳐다만 봐도 아랫도리가 분기탱천하는 강력한 남성기 발기력 개선 효과가 1주일 가량 지속되게 해주는 보약. #백인 여성과 일본 여성들의 성생활 동영상 DVD #혼자여도 전혀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게 해주고, 혼자여서 되려 더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주고, 혼자서도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싱글 남녀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자위용품.

#69 전문의가 권장하는 남녀공용 사랑의 윤활유 『우먼센스 오르가즘 젤™』\$58 (100여회 사용) 끈적임과 자극성 냄새와 색깔 맛이 전혀 없는 무색무취 무자극성 제품이므로 남녀 모두 상대방 모르게 사용할 수 있으며, 여성이 성적으로 흥분했을 때 여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애액과 흡사한 가장 자연스러운 느낌을 갖게 해주고, 남녀 모두에게 미칠 만큼 달달하고 감미로운 황홀한 질 환경을 제공해주며, 삽입하기 전에 서너 방울 바르고 하면 관계가 끝날 때까지 촉촉하게 미끈거리는 야들야들하고 보들보들한 환상적인 감촉을 제공하는 윤활 작용과 제품을 사용하면 할수록 여성의 성감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주며 평소보다 남성의 성욕이 왕성해지고 발기력이 월등하게 강해지며 여성기의 세균 감염을 방지해주는 위생 작용과 질에서 풍기는 콤콤한 냄새까지 청결하게 없애주는 기능성 윤활제 제품 입니다.

61 향기로 후각을 자극하여 충동적으로 성욕을 느끼게 해주는 남녀공용 성욕 자극제 향수, 부부와 연인들의 황홀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만들어 주는 남녀공용 성생활 개선제 최음제 향수, 향기를 맡는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싶은 뜨겁고 황홀한 욕정과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달달한 매혹의 향기 최음제 향수 \$45 (90회 사용) 자신의 신체 부위에 일반 향수처럼 1~2차례 뿌리고만 있으면 처음보는 이성이라도 나에게 호감과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주고 가장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G-Spot을 발달시켜주고, 단련시켜주는 천연 옥 질 속에 넣고만 있으면 여성 불감증과 오르가슴 장애 4주 만에 완성, 질 괄약근 수축운동과 여성 요실금 자가치료 \$75

10 남성 심볼의 뿌리 부분에 끼우고만 있으면 절대로 시들지 않는 남성기 발기력 강화제 O 링 남성 심볼의 뿌리 부분에 밀착시켜 끼우면 빼내기 전에는 절대로 시들지 않는 견고한 강직도 지속 효과와, 터질듯이 부풀어오르는 우람한 사이즈 확대효과, 도톰한 링 테두리 부위가 여성생식기를 미칠 만큼 즐겁게 비벼주고 문질러주는 지압 마사지 효과의 O 링

1시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가량 지속효과 100% 천연 성분으로 구성된 자양강장제 개념의 남성용 1등 건강기능식품, 一石九鳥(일석구조)의 확실한 효과를 보장하는 남성 생식기능 개선제품



5 캡슐 1 병 & 20 캡슐 1병, 두 종류의 제품 구비 ① 신장과 간 기능 건강에 100% 확실한 효과 보장 ② 늘상 피곤한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한 방에 퇴치 ③ 만성 전립선비대증 근본 원인 치료 효과 보장 ④ 70~80대 남성들도 규칙적이고 활기찬 성생활 ⑤ 점점 양이 줄고 메말라가는 남성 호르몬 보충제 ⑥ 막힌 혈관 청소와 고혈압 개선 근본 원인 치료제 ⑦ 우람한 남성기 확대 효과와, 견고한 강직도 보장 ⑧ 먹기만 하면 커지는 남성기 성장 발육 확대 효과 ⑨ 남성 발기부전과 조루증에 확실한 효과 보장

당뇨병 환자도 정상적인 성생활이 가능하게 해주며 70~80대 남성도 나이와 무관하게 생각 날 때마다 발기력을 짱짱하게 만들어주는 즉효성 남성 발기제 성관계를 하고 싶을 때 1 시간 전에 1캡슐만 복용하면 1주일 가량 지속되는 넘치는 정력에 보약효과 만점의 즉효성 남성기 발기제

#12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멋쟁이 남성들의 성샐활 필수품 오리지날 천연 낙타 속눈썹 링 (세척을 통해 반 영구적으로 사용) 말총처럼 까실까실한 환상적인 감촉과 실크 원단처럼 하늘거리는 보들보들한 환상적인 촉감이 실신할 만큼 감미롭고 달달하게 여성기 속살을 구석구석 섬세하게 쓸어주는 전설적인 성생활용품



MD,DC,VA

Sung Hwang&Kim



의료진 과실 혹은 부주의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 상해 혹은 예기지 못한 사망에 이르는 일을 겪으셨나요?

잘못 제조된 의약품으로 고통 받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에 호소해도 과오를 부인하거나 무시되고 있나요?

그 고통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저희 의료사고 변호사가 해당분야 전문의와 협업하여 의료기관을 상대로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출산 분만시 오류로 인한 외상, 뇌손상 혹은 질병

수술 과실, 수술 후 마비 및 부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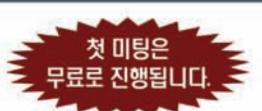
응급처치, 진료 및 치료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질병과 부상

병원시설 내 낙상사고 의료기기 오류로 인한 상해

잘못된 약처방, 약물 과다 처방, 위험의약품 처방으로 인한 심한 부작용 혹은 사망

오진 및 치료지연 과실





410-772-2324

"성황앤김 변호사 사무실의 찰리 성 변호사를 찾아 주십시오."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세계 2위 로펨)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위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 모집분야 ◀ 사무직(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연합감긴회 워싱톤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편한나라 척추신경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 이력서 보내실 곳: carefreeland@gmail.com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LOTTE Glaza 롯데플라자

롯데플라자 스털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쉬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
- *영어/컴퓨터 사용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lounge.com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센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П

나투라 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e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염가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① 위성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4월 27일 토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광고는무료게재,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게재중지를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사무직/세일즈마케팅〉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
- -영어/컴퓨터사용
- -Annandale 인근지역
-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 면 경험없어도 Training 하여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 경력자우대(P&C License 소지자)/ 신입환영
- MS Office 사용가능자
- Benefit: 401K/Health Insurance/ PTO/Sick Leave
-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 풀타임가능하신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성실히함께하실분
- ▶이력서 topcpainfo@gmail.com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시작, 영어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타임이중언어 사무직유경험 40k-50k 베네핏제공

coverworldgr@gmail.com

탑여행사와함께할에이전트를찾습니다! (엘리컷시티, MD)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할곳:ceo@toptravelusa.com
- **▶** 703-256-0606

▶571-232-0702

탑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할곳:ceo@toptravelusa.com
-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L&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유재신 공인회계사(Annandale, VA)에서 함께일하실분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스펀서 가능

► Email: employeehire13@gmail.com

생활안내 703-281-9660(문자)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WUV대학교 입학처 (이중언어) 풀타임 or 파트타임 이력서제출: hr@wuv.edu

식당 장비 세일즈 하실 분 모집 DC, MD와 북버지니아 지역 식당장비 세일즈하실분. 경력자우대. 각종지원프로그램과수당. 문의: 571-332-2101(문자) 또는 edk, tre@gmail.com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희사무실과 동반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첸틀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타임(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 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타임/풀타임직원모집 학생및유/무경험자환영, 컴퓨터/영어가 능자,취업비자/영주권스폰가능 이력서:annandalecpa22@gmail.com

수퍼맥스 웨어하우스 직원모집 *수산제품 및 서플라이 오더. (초보자가능, 최소의 이중언어 및 기본컴퓨터 요함) - Chantilly, VA 703-665-2162(마이클 임)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 에서 fulltime 회계직원구함 www.visitlod.com
- -Quickbook/excel경험필수
- -1년이상회계업무경험좋은 인성과세밀함/성실함
-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dmin Assistant:

애난데일소재한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 Full Time 행정직원구함
- -안정적인 Position원하시는분
- -Detail에 강하고 좋은인성 (must)
-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 -Cash Bonus 포함
-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에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 수어(ASL)통역메니저구함
- -통역사들의스케줄관리
- -정부계약및 vendor관리 -좋은인성과성실함
- -100% Medical/Dental/
- Vision/Life insurance
-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세일즈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패니쉬) 가능한유, 무경험자구함. albert@wkkinc.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301-526-7000 (Cell) Mr. Kim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luvacct1986@gmail.com

JTBC 워싱턴 총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총국에서 촬영감독 채용

- -근무조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근무내용: JTBC 뉴스용보도촬영 및 기타
- -지원자격:신입 및 경력.
- -미국취업에 결격사유 없는분
-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phil9@jtbc.co.kr

josephleejtbc@gmail.com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센터빌.챈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가능한Receiptionist구함 이력서: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챈틀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Entery-Level Welcome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우대, Dentrix Plus Full/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이력서첨부govaepic@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
- -경험많은 Handyman -Part Time Office관리자

- -정육부관리자
- *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가능자
- *PT20~35HR:\$17~20/H i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1) 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2) 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240-477-5683

닥터 오피스 프론트 일하실 성실하신 분 구합니다.resume 보내 주세요 slim@gastrohealth.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가능 경력자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핸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가능, 컴퓨터사용가능, 자격증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및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식당/제과/델리/식품〉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보조(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구함영어소통가능하신분 연봉 5만(현지 이주,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함께취업시고소득(취업기회) 영주권스폰협의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이사

▶571-839-1647

▶703-573-6300

H -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털링점 구인 푸드코트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설 수퍼마켓 정육부매니저 1명, 그로세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워싱턴 디씨 IAD 공항 라운지 키친스태프 를 구합니다 201-551-8861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험자구함.(Woodbridge, VA) 월\$6500+Tip(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스프링필드몰에서 5분거리 Text: 703-371-1263, 703-899-5098

볼티모어지역에서 초보자스시 & fried chicken / 파타임&풀타임구합니다 646-220-8184

애난데일 치맥에서 서버, 캐쉬어 구합니다. 파트타임.캐쉬페이 571-352-4938/Chimc.va@gmail.com

스프링필드 베이글샵에서 빵구우실분구함. 파/풀타임월-토,스프링필드에서 5분거리 703-371-1263

센터빌 Honest Grill 구인 Full/Part-time Server 구합니다. 703-341-7912

메릴랜드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A.A County) 베트남식당. 주 2일 일하실 서버구함. 초보자도 환영. 240-678-5395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분 **▶** 301-926-3638 / 301-538-4246

페이셜/바디 마사지 같이 하실 분 파트타임(2일), 라이센스 필수 일당\$280+팁(\$70-\$120) 맥클린 소재 한의원 703-839-0766 (문자 요망)

첸틀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구함. 자세한사항은문자,메세지다가능 571-215-6767

바버 or 미용사, 바디 마사지사 풀타임/파타임 구함, 애난데일지역 703-505-9020

풀/파타임 이발사 구함. 703-408-1119

4일 또는 2일.일하실 바버구합니다 메릴랜드앤드류공군기지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세탁/얼터레이션〉

바느질하실 분구함. 알렉산드리아지역 703-328-3064

픽업풀타임카운터구함. 우드브릿지지역 571-455-3609

스테포드지역 픽업 수선&캐쉬어 Tel. 703-628-9100

410-926-3200

픽업스토어 카운터, 얼토레이션 구합니다 (풀·파트타임)스테포트·루트원선상 703-501-3335

픽업바느질하실분(파타임)/엘리콧시티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Hanmi Homehealth)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Please send Resume to KDLHJL@gmail.com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 한국/타주면허 갱신

Jim Dong 571-294-0057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구합니다!

콘도 4채 매매

▶ 교통 편리한 PG 카운티에 위치

\$4,200/m ▶ 매매가: \$599,000

(Cash Only)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문의 AGENT 환영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구인 /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2024년 4월 27일 토요일 중앙일보

카운터보면서 바느질하실분 파타임/풀타임, 엘리콧시티. 410-750-0483

알렉산드리아지역세탁소픽업스톨에서 파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기술자구함! ▶240-246-4477

자동차 메케닉구함(애난데일) 571-243-9899

자동차정비소에서일하실분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

자동차정비소 메케닉 일하실 분 폴스쳐지 703-577-5866

첸틀리자동차정비소에서성실히일하실분 모집합니다.메케닉,준메케닉,헬퍼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티자동차정비소성실히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구합니다

미국회사 Electric Co.

▶ 전화문의: 703-678-1749

전기기술자,영어소통필수 973-997-5805 (엘렌)

HD Plus Construction

- 밀웍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넷, 코리안 카운터탑제작) - 프로젝 메니져 (이중언어)
- 높은 페이와근무시간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체공사 맡아서 하실분모집 443-542-1200

EV Electric Co. 차,베네펫,전기기술자,무경험가능 973-997 301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기타구인/구직〉

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연합감리회 워싱톤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성악전공/지휘전공

- 사석· 성역 신동/ 시위 신동 음악 전공(지휘 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이들어간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 직원모집:운전기사/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조건의연봉과베네핏
- -유급휴일과유급병가 eamdc@emmanuel.care
-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부서: 미용학과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센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락빌에 위치한 연합감리회 워싱톤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 -자격: 성악전공/지휘전공/음악전공(지 휘경력)
- -제출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이들어간자 기소개서
- -제출할곳: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 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연락처: 443-621-2625

워싱턴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구함. -데이케어직원/주방보조/간병사(남,여) 문의: 703-850-1100/703-963-1234

필그림유치원교사모집 토들러반풀타임/오후파트타임 571-212-9020

애난데일 인쇄회사풀/파타임 구함. 컴퓨터관리/고객마케팅관리하실분. 신분무.재택 NO

E-mail: newsunny77@gmail.com 571-242-3736

몸이 불편하신시니어 분들모십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어시스트리빙노인분들케어해주실분. 남녀불문경험자우대.숙식도가능. 410-961-3012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분 703-798-7270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사인컴퍼니에서일하실성실하고 꼼꼼하신분.유·무경험자 703-499-0857

어시스트리빙노인분들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경험자우대. 숙식도가능. 410-961-3012

건물관리인(월-토),스폰서가능 영어,전기,기계,목공모두가능하신분 연락: 240-903-0777

피아노주일예배(11시) 반주봉사할분 훼어팩스코스트코근처 브래덕로드. 202-271-2726

버크 태권도사범/보조사범(파/풀타임), 방과후선생님 구합니다 571-243-7027(문자)

tony@incouragemartialarts.com

베이비씨터구함 Vienna,주5일,1-6pm, 아기픽업가능한분,성실한분 213-839-3735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새 나무마루, 새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가능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 -95와RT1만나는 Dumfries
- 아름다운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한 저택 -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 두층각자풀키친과세탁장
- -12베드룸, 6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 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 ▶703-244-3453

아난데일 홈디포 옆 위치.

▶703-244-3453

571-243-7027 (문자)

넓고밝은 3 level 타운홈, 방3, 화 2+2.5 전체마루, 덱, walkout, 5월초 입주 703-725-7871

센터빌 타운하우스 렌트 (월 \$2,795) Hmart 근처, 분리된 웍아웃 베이스먼트(화 장실 포함). 전체3층, 방 4+화장실 3.5.

센터빌CVS 근처, 지하전체렌트(거실, 화장실, 방, 키친, 냉장고), 간단식사, 출입문별도 유포 \$1,300

콜롬비아싱글홈렌트 방5,화장실4,차고2,좋은환경,최고학군 410-599-1800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화장실2,주인잔디관리,전체마루. 703-403-7757

메릴랜드대학가까운 495와95만나는 교통편리한곳. 싱글홈방4, 화2.5차고2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연락처 :301-385-3535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지하철 근방.(교통/학군좋은) 방2,화1,세탁기,새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센터빌타운홈H마트 앞, 월\$3,400 방3,화3,차고2,마루.바로 입주가능 703-401-9997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 4개, 2카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타운홈전체렌트,즉시입주가능. 연락처: 571-277-7758 (문자 요망)

1.페어팩스타운홈, 방3, 화3.5, 좋은로케이션, 잘관리된집\$3,700 2.사우스라이딩타운홈, 방3, 화2.5, 전체새페인트와바닥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3,300 571-567-5797

1.센터빌싱글홈\$2,600/mo 가라지방4화3.쇼핑몰,교통편리 2.페어펙스타운홈\$3,000.방3화3 차고.페어레이크쇼핑몰에서1분거리 202-743-8886

〈콘도 렌트〉

애난데일콘도 방1,화1,새나무마루, 새부엌,새화장실,새페인트,NewLight Fixture,넓은발코니,밝은리빙룸, 계단없는 1층위치.\$1,500(Water,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콘도 렌트. 방2,화2,깨끗한이층집.\$1,700

702-622 -8853

콘도 렌트, 센터빌사거리볼링장 뒷편, 남향집조용한지역, 큰 방 2개, 화장실 2개, H마트 및은행도보 10분, 단지수영장 5분 거리,지정주차 및 방문 차량주차 무한대, 8월말입주 가능, \$2,200(전기세별도) 703-229-3947

페어펙스 웨그망걸어서 5분. \$1,150 개인방, 화장실, 보안보장, 빛 잘들어오는 703-762-6759

〈방렌트〉

애난데일지역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저먼타운 MD 콘도 큰방1, 욕실별도 금연자, 롯데 10분거리. 702-622-8853

클리프턴유니온밀몰부근싱글홈반지하 워크아웃출입문별도

703- 732- 9153 애난데일 K마트 뒤싱글 홈 방1개, 주차 넉넉

애단데일 K마트 뒤성글 홈 망1개, 수사 닉틱 703-965-2343

센터빌H-마트근처단독주택방렌트 지하방+거실, 윗층방하나, 여자분환영 571-251-2885 센타빌롯데 옆타운홈, 방1개(욕실/화장실) 571-970-8048

Fairfax GMU 근처 Townhouse 에 방렌트 욕실 가구완비 \$800 여학생, 직장인 환영 703-981-7615 (문자)

방렌트, 홈디포 뒤, 주차장 넉넉함, 출입문 따로. 571-237-3411

MD 실버스프링 (Calverton교통편리) 싱글홈, 큰방, 욕실, 유포, 인터넷, 가구, 금연 연락처: 301-648-2422

애난데일메시야장로교회 뒤편타운하우스 지하실방하나렌트. 목욕탕, 화장실 703-887-5173

애난데일방1개, 부엌, 리빙룸, 샤워 유포, 인터넷, 세탁기(\$1,300) 703 -618-6634

MD Silver Spring 한아름 10분거리 조용한단독주택 2층. 넓은 마스터 베드룸 쓰실분. 가구완비, 인터넷, 간단한 취사 240-543-6427

애난데일 한강근처 타운홈 방세놓음 **전화**: 571-699-9707

페어팩스 VA 비엔나 전철역 걸어서 아주가까운 곳. 직장인 환영 703-419-0337

Burke H-Mart 10분거리유포, 취사,인터 넷, 방 1 \$600 방 2개 \$1000, 여자분환영 **703-678-7833(문자 바람)**

Fairfax/Burke NOVA, GMU n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인터넷 \$600 여자분 환영 571-214-0188(문자 바람)

단독주택 2층방/인터넷/가구완비/냉장고 별도/주차/샤워별도, 남자분/금연자 29번과 198번사이 메릴랜드 버튼스빌 240-413-2738

MD 렌함지역조용하며 교통편리 직장인을 원함. 즉시 입주 가능함. 방세 저렴, 큰방1, 작은방1 301-379-9660

애난데일노바대학근처방렌트(방1개) 깨끗하고조용한고급스러운집 학생,여자분환영. 703-336-3283

노스 포토맥, NIST 근처 싱글홈 반지하 출입문 별도, 넓은 거실,부엌,화장실, 빨래방, 직장여성구함, 인터넷포함 301-520-2916

센터빌H-마트,하이스쿨각5분거리 방세놓음,여자분환영. 703-507-1180(문자 요망)

애난데일방 1, 샤워실, 출입문, 간단취사 주차편리, 즉시입주. 금연자 571-243-6295

DC출퇴근 매우용이. 395 exit 근처 집앞에 펜타곤 가는 무료버스 10분 간격. 가구 가전 완비. 여성분·금연자 환영 240-477-3232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싱글홈 (단층 구조) 추천 \$495,000

1층(방3)과 반지하(방1, 화1)에 각각 방, 화장실 보유 I-66 Highway에 근접, 교통 편리한 지역

병원, 샤핑몰, 그로서리 등 근린생활 용이



1층 콘도 (시니어 생활 편리) \$350,000

방2, 화2, 1,200 스퀘어, 여유로운 주차 환경, 저렴한 콘도피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촌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당해 드립니다!

66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9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4월 27일 토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광고는무료게재,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게재중지를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사무실/점포렌트〉

애난데일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문자주세요)

애난데일 한강뒤 고급콘도의 사무실렌트 703-835-7404 (Wifi 제공)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등등 활용 가능.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문자)

페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1,\$500,\$900,와이파이, 화장실,부엌있고충분한주차장. 703-966-9937



〈싱글/타운/콘도 매매〉

1.Coming Soon 애닌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한 단독주택, 방4, 화4, 편리한 렘블러 스타일 2.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 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제외한순렌트수입\$5,000/m - 매매가 \$699,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 ▶ 703-244-3453 *Agent 환영
-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샤핑몰, 한국그로서리, 식당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 2. 싱글 \$520,000~590,000 방3,화2.5,0.3에이커대지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4.콘도 Main level \$300,000 방3,화2,콘도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옆 좋은 위치 싱글홈 위층 방3개, 화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2개, 사무실, 화2개, 현관 리빙룸/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부동산/상업용 매매〉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샤핑몰, 1,500 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에이커, 인근800세대신규주택지

개발중인진입로 독점적위치, 상가개발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메릴랜드로럴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 SF, 28 당구대 완비 경험많은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Vienna VA /Diamond Nails Spa 매매

-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Sale Price: \$290,000
- · Weekly's sales: \$6300.(평균)
- ·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파트너십 / 여러다양성을 키울수 있습니다 · Rent: \$7880 (모든것 포함)
- (10년간 랜트인상 없습니다)
-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에 장소 입니다
- **▶** 571-421-0863
-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일식집, 에쉬번 좋은 위치 무한 발전 가능한 곳 관심있는 분 연락 주세요. 703-951-2203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매입/현장매입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
- *이메일,문자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알렉산드리아 location 아주좋습니다. 한국치킨가게 개인적 사정으로 내놓습니다. 문의전화: 703-975-7718

1. 메릴랜드 자이안트옆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9,500/렌트:\$3,750 All(6일근무)부부가능.좋은장점있음.

2. DC.리쿼 비지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2400/SF 1.2층.B1(공간활용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For Sale: Coin Laundry and Commercial Building/Location: Richmond, VA Sale Price: \$2,300,000 Monthly Sales: \$22,000 Coin laundromat, retail store, carwash 포함된상업용건물 매매입니다. 연락처: jnrcoin777@gmail.com

메릴랜드중심에 9년째 운영중인 Nail Salon Supply Wholesale bussiness 주인은퇴로매도합니다.주5일하루4시간 open 부부 운영하기에 적합. 연매상 \$1,2 M, 의욕과 능력에 따라 확장 가능 연락처 (443)812-3958 Mr. 조

뷰티스플라이, 메릴랜드 자리집힌 고급흑인지역, SBA가능 확실한 분 상담 703-401-9997

Pick up 매매 주인은퇴 Good location. 얼터레이션가능한분,세탁소오너에최적 Woodbridge 지역 571-224-7777

볼티모어 델리 매매

시간오전7시-오후3시/주매상4천 렌트\$525(전기료포함) 443-766-4813 (오후 3시 이후 전화 바람)

기타

치과임플란트:\$1,000 임플란트크라운,별도:\$750 다양한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운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요점정리 · 예상문제/한국 · 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구입·등록/기타교통국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염가로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써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장소:버크레이크쉘터/•시간:일아침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워킹클럽
-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장기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림.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촌 2분거 리), MD 타주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시니어)
- -주1회90분수업
- -기초반/중급반/고급반
- ▶문의:703-678-6639

유기견 해외입양 이동(입양보호) 봉사자 한국에서 미국 돌아 오시는 길에 유기견 해외 입양보호자봉사하실분. 비용과서류절차 등은 유기견 단체에서 다제공하며 봉사자가 별도로하실일은 없습니다. 유기견들의 새로 운삶을 위하여 봉사 바랍니다.

▶문의:카톡ID연락처 sibang0622 전화 010-8944-3363, 703-244-3453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타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Golf 레슨합니다. 초보자 원포인트 환영 706-203-5800

Falls church VA 메모리얼 파크 최고 명당 한자리풀옵션절반싯가로판매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Calculus/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이민국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없으신분라이드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낚시즐기실분환영합니다. (Mr Kim) 301-919-1788

개인 및 그룹 미술 지도 취미, 초보자 환영, 유화전공. 오래된경력,시간조율가능! 703-489-6567(문자바람)

〈중고품/기타매매〉

흰색 Vertical Blind(Triple Door 용) 80"H X110"W. 무사용 새것(Box) Sale \$400 (Reg. \$800)

이사(downsizing)세일

- -treadmill & bike machine \$100 -쎄라젬 \$100 -3 bikes \$100
- 에어콘디션 4대 팝니다. 6개월 사용했음 6.000 /8.000 / 10.000 / 12.000 (포타블 이동식) 새 것과 다름없음. 전부\$250

고향동산 중앙에 있는 모지 2자리 팝니다. 571-365-6757

- -거실용 대형 카펫트 \$1000
- -도자기 꽃병(4세트) \$100
- -교자상 2개(정사각형, 직사각형) \$100 -손수 만든 화장대 \$100

허리 운동하는 꺼꾸리 싸게 팝니다 사용설명서 있음 \$50 240-477-3232

골프채 판매

- -드라이버9.5도315cc
- 아연닉센트4_9SP번까지8개
- 던랍(스페인제)3_9PS7개
- 240-475-4166

2024년형 Hyundai Tucson 5700마일 유학생 귀국사정으로 매매 \$27000 상태 최상

\$200, 등산배낭신발,스틱,알카라인 싱크대용정수기기타등등 703-597-8909

NICKENT4--9,P,S9채 240-475-4166

중고 승용차 삽니다. 운행에 지장 없는 차 파시려는분은연락바람 240-796-0093

〈건축/페인트/마루〉

예쁘고실용적인주방과욕실을디자인하여 만들어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My Roofers 영업직직원구함. Roofing, Siding, Gutters, Windows, 무료 견적,/ Roof Inspection. 주거용 상업용 모두 취급함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클리닝,샌딩,파워워시,핸디맨서비스 ▶문의: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전문회사/건축,시공및건물 시설의체계적인유지보수대행관리, 상가 및 빌딩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일체/자체라이센스보유,책임보험가입

와니 건축

▶703-504-6116

▶571-331-6811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 그외모든공사,주정부라이센스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아이디:wani6811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오바마케어신청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융자〉

제인 최 융자 25년 경력 매입/재융자/특수융자 ▶703-244-3453

마이클 장 융자 주택/상업융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에셋 워싱턴 한인 전문 융자회사 -낮은이자/Cashout/명의변경/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문제의가스입니다.NRPP 면허소지

〈냉동&히팅〉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힛펌프, Carrier, Trane딜러,

덕트,드라이어벤트크린,가정용/상업용

▶ 문의:703-380-2282

▶202-774-6554

L&B UNIVERSAL 히팅,에어컨가정용/산업용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덕트 클리닝 **▶**703-678-1749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케리아웃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히팅,냉동,냉장,워킹쿨러,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에어컨,히팅,냉동,냉장,전기,플러밍, 워킹쿨러,아이스머신,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Mr. Chung)

〈보석〉

골든벨라보석(센터빌, VA) K24,K18,K14,K10,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판 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카펫·에어덕트크리닝/마루〉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하드우드/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카펫, 카펫및에어덕트크리닝 최상의트럭파워스팀샴푸,살균,소독,냄새및 얼룩제거,브러쉬,파워풀청소.응급수해복

구및타일플로워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키친리모델링,온수,히터 디쉬워셔,Disposals,상하수도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변기,하수도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GAS공사,히팅,에어컨,냉동 집안밖물새는것

▶703-499-5984

〈이삿짐〉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이사전문, 비지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가구,가전품등을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703-339-8844

▶703-550-2424

범양 해운 정확한선택, 확실한만족,귀국이 삿짐 포장이사,타주이사(차량운송)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타주,시내이사,고품격포장,자체창고 보관서비스한국화물배송서비스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100% 자체보험 확실한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조양 운송 신속,안전,신용,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타주,시내이사,자체창고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핫탱크등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빅 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시공-타일,창문,화장실,지하실,

마루,부엌 ▶571-338-0977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 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등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계단,계단손잡이 ▶703-340-5858(VA)

▶443-980-5858(MD)

▶703-929-9601

▶571-594-4080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환영,무료견적, 철저한AS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전기자동차가정용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보유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Window 상점,가정용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Door설치,MD/VA/DC지역

▶703-346-5962

〈임업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깍기 울타리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관리

▶540-905-2849

생활안내 703-281-9660(문자)

443-355-7700

통역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서류대행,심부름대행,퍼밋대행,

703-946-4969/inyeolchoi@hotmail.com 풍경이 있는 바다에서 주말마다 배위에서

703-431-4521 (문자 주세요)

-tools \$100 -living room set \$300 문의: 703-581-2631

703-635-9998 메세지 주세요(챈틀리)

703-401-9905

- -요넥스6_9PN6개

703-989-9828

귀국관계로 빅세일 런닝머신\$150,이탈리아가죽쇼파3명

골프채아이연삿Surpass 3--9번까지 7채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703-760-3161 Park's Floor

하우스페인팅(In,Out),덱메인터넌스와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2024년 4월 27일 토요일 중앙일보

'메디케어''&"오바마케어"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재가입

사업체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망설이지 마세요.유니버셜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페인트

Since 1988

<mark>▶ 건축ㆍ시공 및 건물ㆍ</mark>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mark>▶ 상가 및 빌딩 신축ㆍ</mark>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188

B B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죽

Repair Doctor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 주택,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 덱, 마루, 캐비넷 샌딩 보수

플로밍. 핸디맨 써비스

703)965-3011

무엇인지 아시나요?

<mark>라돈 가스는 폐암</mark>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어 범앙에운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 **장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귀국,해외 이사 타주.시내 이사 귀국,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교려통운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20년 전문//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NEST **E**NERGY **S**ERVICE, LLC

🕰 EV 전기자동차 🕰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 VA/MD 지역 EV충전소 설치업체
- 충전기 설치시 카운티 허가, 인스팩션 도와드림 지역 전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도록 도와드림

www.nestenergyservices.com

전기 공사

703-855-356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 다이아몬드
- 백금(Platinum)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남양 진주 각종 보석 취급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 K14, K18, Setting 전문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 내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돌 반지 팔지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전기공사, 메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리모델링

703-582-7757

중앙일보 2024년 4월 27일 토요일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Chung's Refrigeration

저人내도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www.intertechhvac.com

(443) 850-3703 / (410) 979-4242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삿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Master Plumber/Gas Fitter

Since 1999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REPAIR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Lee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24 hours 온수, 히터 (가스/전기) 7days
-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32년 전통의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팀 샴푸 (고온 300°F)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큼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풀청소 (덱,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플러밍 ◆페인트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Master HVAC Contractor

对台引至 स्थाम् ध्रेष्टापा.

703-340-5858 (VA) 443-980-5858 (MD)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 등 일체

" 일단 <u>전화</u>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 6 Months 1 Year \$550 \$1,000 1BOX \$300

\$1,100

\$2,000

\$2,000

\$3,600

광고 문의: 703-281-9660

\$600

\$1,200

2BOX

4BOX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VA-MD-D.C ⁴ 한국산 Smart Curtain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 (Hardwood/Carpet /Vinyl)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임업 멀칭 / 토지, 틀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임업 멀칭

- 토지 개간



융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해드폰 540-905-28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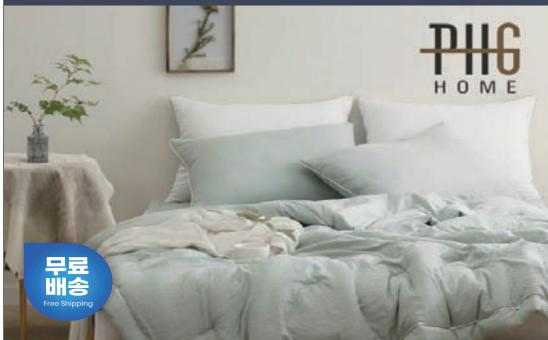


임업 멀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멀칭은 자란 나무, 덤불,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DIAWINGS

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 AK백화점에 입점된 박홍근 홈패션

45년 고품격 디자이너 침구브랜드 & 신개념 에어워싱 기술 박흥리 한국산 봄 에어워싱 차렵이불

퀸사이즈 차렵이불 Blue, Pink, Mint

\$130 \$**99**

XXIO NEW 2024 **다이이윙스 골프공 [6구 증정]**

새로운 BiFLEX FACE와 진화된 New Active Wing 젝시오13 남성/여성용 **아이언세트**

\$1099.99

7pcs 5,6,7,8,9,PW,SW

\$1539.93







만성통증, 염증, 불면증에 효능, 암 증상 및 우울증, 뇌전증 개선

풀스펙트럼 유기농 CBD 통증크림

CBD**1000mg** \$59.95

CBD**2000mg**



태국의 인삼 흑생강! 자색 생강, 파비플로라, Black ginger

72시간 국내산 저온액 추출공법으로 생산한 끄라차이댐 마일드

핫딜 출시 이벤트 특별세일

\$119.99 **\$99.**99

MEDIHEAL





DIY KIT 2박스 쌀누룩 고추장을 손쉽게 만들어 보세요!

인공조미료나 첨가물없이 우리 가족 먹을 고추장을 직접 제조

다산명가 쌀누룩고추장 DIY Kit

물붓고 섞으면 끝! 100% 한국산 원료 \$49.50 \$34,50

2개구매시 ^{\$}40 저자극 콜라겐을 꽉 꽉 담아 탱탱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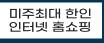
압도적 1위 토너패드! 탄력케어 주름개선 데일리 케어

메디힐 콜라겐 채움 패드 100배

\$40







가게/매장 구입은 불가능하니, PC나 셀폰으로 QR코드 찍고, 213.368.2611 온라인 Hotdeal.Koreadaily.com에서 구입해 주세요.





광고문의 213-368-2525

구인

구인

*데빵 쉐프 0명 텍사스 달라스 백화점 몰내 가\$25만, 주인직접매매 *스시 쉐프 0명 4,700sf, 렌트\$7,000(UT포함) 유경험자 (254)652 - 1867beautyworlddenton.com

이민생활의 나침판 (213)368-2525

침식제공(걸어서 출퇴근 거리) 알라바마 관광지역 (251)968-2525

(256)653-1970 童 宇宙七至·李 중앙안내광고가 함께 합니다. (213)368-2525

한식당

경험자 우대 숙소제공 가능 연봉 협의후 결정 오레곤주 포틀랜드 (971)451-9022

성실하신분

컨비니언스토어 *루이지애나주

(504)430-8426 (504)373-2163

Speed Alteration 일감풍부, 연인컴10~12만 부부팀 환영, 숙박가능 배우면서 일할수도 있음



HotDeal.KoreaDaily.com

미주한인사회최저가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ASK미국에서 유능한 전문가를 모십니다!

전문가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YONSEI UNIVERSITY **GLOBAL MBA 2024 ADMISSIONS** Application Period

Application

MARCH 7 - APRIL 18

Tel. +82-2-2123-3254 | Email. gmba.admissions.ysb@yonsei.ac.kr

SUBMIT ONLINE -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80-90대 남성도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 & 남성 발기 링, 전설의 낙타 속눈썹 & 바르고 하면 남녀 모두 홍콩가는 바르는 성생활 흥분제, 윤활유 젤 ·213-210-9720, papaaaa.com

30년 1파운드 \$750→\$550 40년 1파운드 \$1,500→\$950 50년 1파운드 \$2,350→\$1,500

· 건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Dealer #90-447305)

(213)800-3662 (818)518-0033

40% 햇산삼세일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한인 업소록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치질 - 치루 수술 안하고 0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풀림·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뼛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Leisure World Seal Beach, CA

주택 구매자 조건

-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경우 한분만도 가능)
-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aksusa@vahoo.com Berkshire Hathaway



한의한반사서영수원장인니마,연방정부상부상([원화-19000년))의 연기를받은 정점한연소인니마, 85년동안도외주세고객여덤분께 [각





\$4500 \\$1400 \\$5500 \\$1700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신원음옥란 조인틱사란 50% 특별할인기 Tel-21833353334 Cell-2185033334

성민산심한방병원



FOR **HEDGE FUNDS**

All about Hedge Funds Investment



516-321-0353 chris @bayview.llc

회사 설립 30 Years of CPA experience for Hedge Funds (C)

도와 드립니다.

운영, 투자, 회계 관리 전문

QR code 참조



JOHN CHUNG John.chung@bayview.llc 917-609-5690

대한민국 최고의



북미주 일월 총판업체 213,985,4200 www.ilwoulusa.com











www.ilwoulusa.com















탄소 원적외선 벨보이원단 기모 극세사 워셔블 온열매트

트윈 \$329 | 퀸 \$379 트윈 \$229 | 퀸 \$279



싱글 \$**269** | 더블 \$**299** 싱글 \$**169** | 더블 \$**199**



탄소 원적외선 향균원단 탄소 원적외선 100% 천연섬유 탄소 원적외선 특수코팅 방수 에어로실버 워셔블 온열매트 프리미엄 텐셀 워셔블 온열매트

싱글 \$**309** | 더블 \$**359** 싱글 \$219 | 더블 \$259



온돌마루 카본 카페트

중형 \$**385** | 대형 **\$465** 중형 \$335 | 대형 \$415



모터없이 자연순환방식 숲속애 온수매트

트윈 \$349 | 퀸 \$419 트윈 \$299 | 퀸 \$369



편리한 쇼파용 온열매트 **\$129 \$79**





Annandale \$884,900

방4, 화장실 4, 편리한 렘블러 스타일













Alexandria 킹타운 콘도

방2, 화장실1

\$329,900



Springfield

방2, 화장실2

\$317,000



리모델한 예쁜 타운하우스

Fairfax

\$735,000

Costco 동네





새로 리모델한 콘도

Annandale \$209,900

새 마루, 새 페인트, 업데이트된 부엌과 화장실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시실 분·경매)



Principal 세리 리 703.244.6526



Hyundai di | = 54 Tel:703.813.8949, 703.813.8150~5